

일본 양명문고의 한적

陽明文庫の漢籍

- 일시: 2016년 2월 16일(화) 16:3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대회의실(B203)
- 주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BK21 PLUS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요시무라 히로미치 芳村弘道

리츠메이칸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동양문학사상을 전공했다. 현재 리츠메이칸대학 문학부 교수로 있다.

문헌학을 바탕으로 이백, 왕창령, 맹호연, 위응물, 백거이 등 성당·중당 시기 시인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조선본 『夾注名賢十抄詩』의 기초적 고찰」 등의 논문을 제출하는 등 한국의 고문헌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 『唐代の詩人と文獻研究』(中國藝文研究會, 2007), 『十抄詩・夾注名賢十抄詩』(汲古書院, 2011), 『唐代的詩人研究』(中華書局, 2014) 등이 있다. 1991년에 일본중국학회상을, 1995년에 제5회 蘆北賞을 수상하였다.

일본 양명문고의 한적

1. 들어가며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 614~669)에서 시작되는 일본 제일의 귀족이었던 후지와라씨(藤原氏)의 본류는 헤이안시대 말기, 후지와라노 다다미치(藤原忠通, 1097~1164)에 이르러 적자 모토자네(基實), 그의 아들 모토미치(基通)의 혈통과 삼남 가네자네(兼實)의 혈통으로 가계가 둘로 나뉩니다. 전자는 가계가 고노에케(近衛家)로, 대대로 섭정(摂政)·관백(関白)의 직을 계승하도록 허락된 집안의 필두를 차지하였습니다(가네자네의 가계는 구조케(九条家). 이후 고노에케에서 다카쓰카사케(鷹司家), 구조케에서 니조케(二条家)·이치조케(一条家)가 일어나며, 이들을 총칭하여 고셋케(五摂家)라고 합니다). 이래로 고노에케는 면면히 이어져 현재 3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대로 긴 세월 동안 지켜 내려온, 십수만 점에 이르는 고문서·고기록·고미술공예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하여 보존관리하는 특수한 역사자료관이 양명문고(陽明文庫, 요메이분코)입니다. 설립은 1938년으로, 교토시의 서북, 우타노(宇多野)의 야마아이(山間)에 있습니다. 양명문고의 풍부한 자료군에서 漢籍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자랑할 만한 장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른바 한학(漢學, 주로 유가의 경전, 중국의 역사서, 한시문)이 학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서적을 통해 중국의 학예를 수용하여 일본문화를 육성하여 왔습니다.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 “文은 『文集』(백거이의 시문집 『白氏文集』), 『文選』(6세기 전반 梁代에 편찬된 시문선) 『新賦』(운문의 일종), 『史記』 『五帝本紀』(전한 사마천의 역사서의 권1), ……”(「文は」의 章段)라고 기록되어 있어, 헤이안조의 귀족들도 한시문의 문재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이안시대 전기(891년경)에 편찬된 후지와라노 스케요(藤原佐世)의 『日本國見在書目錄』은 그 무렵 일본에 있었던 한적 리스트인데, 1,579부 16,790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노에케의 선조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 966~1028)도 한적의 收藏에 열심이어서, 『御堂關白記』(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록)에는 『문선』·『백씨문집』 외에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 칙명에 의해 開寶연간(968~976)에 출판된 『大藏經』도 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미치나가 舊藏의 한적이 현존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양명문고의 한적은 무로마치시대 이후에 입수된 것으로, 대개 두 개의 장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무로마치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걸친 중세 한학 관련 古版本·古寫本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도시대 중기, 제21대 當主 고노에 이에히로(近衛家熙, 1667~1736)의 수집으로 이루어진, 그의 학예와 결부된 한적입니다. 이 중에는 세계에서 오직 양명문고에만 존재하는 ‘천하의 孤本’과 중국에서는 전래가 끊어져 일본에만 남아 있는 ‘佚存書’도

적지 않으며, 國書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을 소장한 것으로 저명한 이 문고는 한적 귀중 서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적군부터 주목할 만한 책을 골라 소개해 봅시다. 다만 그 전에 한적으로서 유일하게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遊仙窟』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遊仙窟 1冊(帖) 唐·張鷟撰 南北朝時代寫

『유선굴』은 당나라 張鷟(字는 文成)이 지은 소설로, 官命에 의해 황하의 수원지에 간 남자가 도중에 신선이 사는 곳(仙窟)에 빠져들어 崔十娘·五嫂의 대접을 받고, 十娘과 하룻밤을 함께 한 후에 여행길에 오른다고 하는 남녀 간의 艷事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전래가 끊어졌으며, 일본에만 전하는 일존서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근대 중국의 문호, 루쉰(魯迅)도 일본의 책을 이용해서 본서를 연구하였습니다. 『유선굴』은 나라시대에 전래되어 오토모노 다비토(大伴旅人, 665~731)의 「遊於松浦河序」·야마노우에노 오쿠라(山上憶良, 660?~733?)의 「沈痾自哀文」(『萬葉集』 권5) 등에 본서가 인용되어 있으며, 이후 헤이안기의 『겐지모노 가타리(源氏物語)』, 근세의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1693)의 『好色一代女』, 메이지의 시바 시로(柴四朗, 1853~1922)의 『佳人之奇遇』 등 오랫동안 일본의 문학에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양명문고본은 책 말미의 필사기에 의하면 貞和(조와) 5년(1349) 정월에 俊가쿠(俊覺)가 ‘家本’을 書寫하고 여기에 엔가(円賀)가 嘉慶(가케이) 3년(1389) 정월에 朱筆·墨筆로 두 종류의 훈점을 쳐서 校습을 가한 것입니다. 『遊仙窟』의 古寫本은 근년에 새로 나온 金剛寺 소장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어서 다이고지(醍醐寺)본, 신푸쿠지(眞福寺)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도 『유선굴』의 古來의 訓法을 전하고 있어, 헤이안시대 이래로 어떻게 읽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텍스트입니다. 粘葉裝 1帖, 紙の粉色(다갈색?) 表紙 22.3×14.8cm, 오른쪽 아래에 「一乘院/快忠」 墨書(一乘院은 興福寺의 塔頭). 全52葉. 押界(주걱 등으로 줄을 넣은 靨), 各面 6行, 行14字(19.0×13.2cm).

2. 中世漢學 관련 古版本·古寫本

헤이안시대 이래 한학은 하카세케(博士家: 菅原·大江家 등)의 주도 하에 귀족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나, 가마쿠라 말기부터 가마쿠라·교토의 선종사원을 중심으로 한 禪僧에 의한 한학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禪籍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유가의 경전(경서)도 兼修하였으며, 송(북송: 960~1127, 남송: 1127~1279)·원(1260~1367)의 문풍을 학습하여 한시문의 제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고산(五山)문학이라고 하는 중세한학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禪林에서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경서와 시문집의 강의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필기되었습니다. 이를 ‘抄’·‘抄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주로 선림에서 佛典·漢籍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른바 고산판(五山版)입니다. 선승들은 하카세케(菅原家 등)의 학문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헤이안왕조 한학 전통의 계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셋칸게(摂関家)의 필두로서 전통문화의 담당자였던 고노에케(近衛家)에 있어서도 신조류라고 할 만한 禪林文化와의 교섭

이 발견됩니다. 고잔문학의 시대는 대체로 에도시대 초기에 이릅니다만, 양명문고의 서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고노에게와 고잔 한학의 직접적인 관련은 에도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확인됩니다. 또 도요토미씨(豊臣氏)의 시대에 조선에서 활자판의 기술이 전해져 한적도 출판되었습니다. 이를 고활자판이라고 하는데, 양명문고는 고활자판의 소장으로도 일본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중세한학·고잔문학과 관련된 문고의 한적을, 중국의 고판본·일본 고사본·고잔판·고활자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판본이란 송·원시대의 목판본을 말하며, 일본 고사본이란 무로마치시대 이전의 필사본을 가리킵니다.

— 중국의 고판본(宋·元版)

2 春秋經傳集解 30卷 16冊(首冊의 卷1·2는 五山版에 의한 補配) 晉·杜預撰 南宋刊

『춘추』는 공자의 편찬이라고 전하는 경서로, 춘추시대 노나라 열두 공의 연대기(기원전 722~481)입니다. ‘經’은 이 연대기의 본문, ‘傳’은 춘추 말기의 左丘明의 해설, ‘集解’는 저명한 杜甫의 선조에 해당하는 晉나라 杜預에 의한 經·傳의 주석으로, 이들을 하나로 엮은 것이 『춘추경전집해』입니다. 이 판본은 권말에 남송 淳熙13년(1186), 江陰軍(江蘇省 江陰市) 장관 趙不違의 발문이 있어, 紹興(1131~1162) 초, 강음군에서 秘閣의 正本(북송시대의 국자감본, 말하자면 국립대학 교정본)을 저본으로 해서 출판한 것을 중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阿部隆一(아베 유이치)遺稿集』 제1권 「日本國見在宋元版本志經部」에 의하면 이 송판은 소흥 20년(1150) 전후의 원간본(초판본)에 보수를 가해 새긴 것으로, 보각은 乾道7년(1171)·淳熙13년, 다시 남송 후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 판본은 북송 국자감본의 계통을 잇고 있어 텍스트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같은 판본으로는 대만 고궁박물관에 6권의 잔본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阿部氏의 前掲書에 의함), 대단히 귀중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로마치시대의 상세한 기입(朱筆이나 墨筆의 句點·朱線·ヲコト點·聲點·訓點, 音義·校異의 頭注)이 남아 있어, 중세의 경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무로마치 말에 粘葉裝(둘로 접은 종이의 접힌 부분을 풀로 접착한 장정)에서 線裝으로 개장되고, 벌레가 먹어 책이 상한 곳을 보수한 종이가 판심에 대어져 있습니다. 補配의 首冊은 남송 嘉定9년(1216)의 興國軍(湖北省 黃石市 陽新縣) 學刊本을 南北朝期에 복각한 舊刊本(五山版)으로, 이것도 희귀본입니다. 藍色表紙 26.4×16.9cm, 卷3 首葉의 匡郭 20.7×13.9cm.

3 新編方輿勝覽 70卷 20冊 宋·祝穆編 祝洙補 元初刊(覆南宋咸淳刊本)

이 책은 남송 말 建安(建陽과 나란히 福建省에 속하며 明代까지 출판이 성행하였던 현)의 祝穆이 편찬하고 아들 洙가 증보한 전국지도입니다. 嘉熙 己亥(3년, 1239)의 축목의 발문을 가지는데, 스미요시 도모히코(住吉朋彦) 씨의 『方輿勝覽』版本考(『斯道文庫論集』 제49집, 2015년 2월)에 의하면, 이 판본은 元代(1279~1368)에, 남송 말의 咸淳(1265~1274) 발간본에 보수를 가한 판본을 복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리서입니다만, 각지의 명소가 시문에 어떻게 그

려졌는지, 작품을 인용해서 소개하는 것에 주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시문의 참고서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무로마치시대에 전래되어 중세 한학을 주도한 교토의 난젠지(南禪寺) 등 고잔으로 총칭되는 선종사원의 승려들이 애용하였습니다. 이 책도 ‘雲澤庵文華軒公用’의 목서(각 책 말미에 있음)가 보이듯이, 일찍이 禪寺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옛 시기에 同版本·異版本으로 결본을 보충하고 書寫해서 조복한 부분이 보입니다. 또 양명문고에는 별도로 58권의 송판 잔본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紺色表紙 20.6×13.5cm, 匡郭 17.2×11.3cm.

二 日本古寫本

4 松齋梅譜 存10卷(原15卷) 1冊 元·吳太素編 室町末寫

중세의 수목화와 시문의 제재로서 애용된 매화에 관한 책입니다. 권1과 권2는 매와 그림의 이론과 묘사법을 기록하고, 권3부터 권6 전반까지는 매화의 여러 모습에 대해 그림과 시로 설명하고, 권6 후반은 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권7부터 권10과 권15는 아쉽게도 일실되었습니다. 권11부터 권13은 매화에 관한 시문을 수록, 권14는 매화를 잘 그린 畫人の 전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는 일실된 일존서인데, 그러면서도 양명문고본은 傳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매우 귀중합니다. 半葉 14行, 行25字前後 不等, 字面 높이 약 23.0cm. 覆表紙(26.8×22.3cm)는 근대의 것, 原表紙는 本紙과 같은 종이로, 墨筆外題 「百梅」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 長恨歌聞書 1冊 清原枝賢·清原宣賢撰 一如日重補 江戸初寫

잘 알려져 있듯이, 당나라 白居易(자는 樂天)의 명작 「장한가」·「비파행」은 헤이안시대 이래 애독되어 일본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로마치시대에는, 이전에 唐代로 소급되는 고본 계통의 텍스트가 사용된 것과 달리, 宋末·元初의 黃堅가 편집한 시문선 『古文眞寶』의 전집에 수록된 본문으로 읽혀, 중세의 한학자와 고잔승려에게도 친숙하였습니다. 「장한가」에는 백거이의 벗 陳鴻이 단편소설로 지은 「長恨歌傳」이 부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카세케(博士家)의 학문을 계승한 기요하라노 에다카타(清原枝賢, 外記入道雪菴, 1520~1590)에 의한 「長恨歌傳」·「琵琶行序」의 講釋의 필록(중세의 강의록을 抄 또는 抄物이라고 합니다)과 에다카타(枝賢)의 조부 노부카타(宣賢, 1475~1550)의 「長恨歌抄」·「琵琶行抄」를 더하고, 여기에 니치쥬(日重, 1549~1623) ‘追加’의 「長恨琵琶抄」을 부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長恨歌抄」의 말미에는 ‘天正二(1574)八月初八日於洛陽建仁寺兩足院書之畢’이라고 하는 원래의 필사기가 있고, 또 니치쥬의 「長恨琵琶抄」의 말미에는 ‘此十一枚追加者元和二丙辰(1616)二月, 對小僧□令校合, 時先年/之抄外, 箋書附之. 又補先抄之闕而已’라고 識語가 있습니다. 필사는 복수의 사람들이 분담해서 했습니다. 니치쥬(日重, 호는 一如, 1549~1623)는 日蓮宗의 고승으로, 고노에케의 제9대 당주 미치쓰구(道嗣, 1332~1387)의 아들 玉洞妙院 닛슈쇼닌(日秀上人)이 應永(오에이) 17년(1410)에 개창한 혼만지(本滿寺)의 12세입니다. 니치쥬는 法

華僧입니다만, 기요하라 에타카타, 하야시 소지(林宗二, 1498~1581), 사이쇼 쇼다이(西笑承兌, 1548~1608)에 나아가 유학도 수학하였습니다. 香色表紙 28.3×20.6cm, 本文 無界 11行, 行25字에서 30字 不等, 字面 높이 約 세로23.0cm.

6 論語抄 10卷 10冊 湖月信鏡撰 笑雲清三編 室町末寫

이 책에는 ‘是書, 湖月老人所講也. 前後二十/三席, 始南泉終方廣. 予僅萬之一鈔之. /傍執宜竹和尚聽書而贅矣. 曾參/魯參之嘲, 傳說傳說之錯. 不知聚幾州鍊, 鑄箇一愚鈔乎/永正十一壬(甲)戌(1514)九月望 清三志’라고 하는 필사기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해 산조 사네타카(三条西實隆)와 교류하고, 도후쿠지(東福寺)의 주지를 지낸 湖月老人, 곧 고게쓰 신쿄(湖月信鏡, ?~1535)의 講釋을 필록하고, 宜竹和尚 곧 게이쥬 슈린(景徐周麟, 1440~1518)의 抄를 더하여 편찬한 『論語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抄物을 정리하고 필사기를 쓴 ‘清三’은 『四河入海』(天文3년, 1534년 성립), 『古文眞寶抄』 등 諸家の 抄를 집성한 책의 편찬자로 알려져 있는 쇼운 세이잔(笑雲清三)입니다. 이 책은 헤이안 왕조 이래로 지속된 魏나라 何晏 「集解」의 古注를 위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남송 朱熹 「集注」의 新注를 추가한 곳이 있어, 고잔 승려에 의한 중세 유학의 새로운 경향을 살필 수 있는, 일본유학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ゾ式」(「~ゾ」로 말을 끝맺는 문체)의 抄로, 한 사람이 書寫. 香色表紙 21.4×16.3cm, 字面 높이 約16에서 18cm.

7 黃烏鉢抄 20卷 5冊 編者未詳 室町末寫

‘東坡·山谷, 味噌·醬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파는 蘇軾, 산곡은 黃庭堅의 호인데, 두 사람은 북송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이 말은 ‘味噌·醬油’ 외에 소식·황정건의 시는 중세의 선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애독되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서는 황정건 시의 抄物입니다. 송나라 任淵의 주석본을 바탕으로 시구를 들어 상세한 해석을 하였으며, 문체는 「ゾ式·ナリ式」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는 「山谷詩集註」(권1~3·5·6·8~11), 「山谷詩」(권4), 「山谷詩集」(권7), 「黃詩抄」(권12~20), 「山谷抄」(권13 尾題), 「山谷詩抄」(권16 尾題)로 제각각이며, 「黃烏鉢抄」라는 서명은 外題에 의한 것입니다. 서명의 유래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黃’은 황정건, ‘烏鉢’은 불교어로서 蓮華를 가리키는 ‘尼羅烏鉢羅華’의 약칭입니다. 반리 슈쿠(萬里集九, 1428~?)의 『梅花無盡蔵』 권5에 黃山谷의 畫像을 노래하여, ‘詩는 烏鉢花를 연다’라고 하며 그 시의 훌륭함을 절찬한 용례가 있는 것에서, 황정건 시의 주석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는 序跋·識語와 같은 것이 전혀 없어 아쉽게도 편찬의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쓰카 미쓰노부(大塚光信) 씨의 「山谷抄」(『續抄物資料集成』 제10권 해설편)에 의하면, 전반은 이치칸 지코(一韓智翹) 「山谷抄」에 별도의 抄를 보탠 내용에 가깝고 후반은 하야시 소지(林宗二) 「黃氏口義」와 공통되는 곳이 보이는데, 하지만 완전히 독자적인 부분도 있는 抄者未詳의 「山谷抄」라고 합니다. 본서는 다른 傳本이 존재하지 않는 孤本으로 생각되며, 또 난해하기로 유명한 황정건의 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귀중합니다. 여러 사람이 필사. 香色表紙 28.8×21.5cm, 半葉 12行, 行30字 前後不等, 字面 높이 約 21.0cm. 양명문고에

는 고할자본의 『帳中香』(23권 41책)이라는 山谷抄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8 兩音(略韻) 1冊 英甫永雄編 永祿9年(1566)寫(編者手稿本)

「兩音」이란 두 가지 음이 있는 한자에서 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말한 것으로, 이 내용이 본서의 앞에 부록되어 있어, 서명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다만 본서는 선승이 시문·계송·聯句를 제작하는 데 유용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下接字를 같이 하는 속어를 詩韻(운자의 106분류)에 따라 정리하고 해당 속어의 용례·전거를 제시하는 ‘韻類書’라고 불리는 어휘집입니다. 이런 부류의 책은 ‘略韻’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원래 붙여져 있었던 題簽이라고 생각되는 栗皮 葉색의 종이 조각에는 ‘畧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명이 본서 전체의 내용으로서 어울릴 것 같습니다(『室町時代研究』 제3호 수록 住吉朋彦氏 「韻類書の効用」 참조). 피사기에 ‘永祿第九丙寅仲冬, 永雄侍者二十歳而書于若之安國高成禪寺(永雄侍者 스무 살에 若[狹]의 安國(寺)의 高成禪寺에 쓴다)……’라고 되어 있어, 永祿(에이로쿠) 9년(1566), 20세의 에이호 에이유(英甫永雄, 雄長老. 1547~1602. 若狹武田氏, 어머니는 細川幽齋의 누이)가 편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健仁寺(建仁寺)·南禪寺(南禪寺)의 주지를 지낸 선승으로, 제자에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있으며 기요하라노 에다카타(清原枝賢)·사이쇼 죠타이(西笑承兌) 등과 교류하였습니다. 또 17대 당주 고노에 노부타다(近衛信尹, 1565~1614)와 18대 당주 고노에 노부히로(近衛信尋, 1599~1649)과도 관계가 있습니다(信尹와의 관계는 前掲 스미요시씨의 논문 참조. 양명문고에 信尋筆 『雄長老狂歌百首』所藏). 栗皮表紙 24.0×19.1cm, 字面 높이 약21.3cm.

三 五山版

9 集千家註批點杜工部詩集 20卷(卷10~12缺) 6冊 唐·杜甫撰 宋·劉辰翁評 元·高崇蘭編 南北朝刊(覆明洪武元年刊本)

두보의 시는 당나라 후반기부터 평가되어 송대에는 많은 주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주석의 집성서도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남송 말의 劉辰翁의 제자, 高崇蘭(字는 楚芳)가 스승의 評에 여러 주석에서 발췌한 것을 추가한 두보시집을 편찬한 것이 본서입니다. 原刻은 원나라 大德 7년(1303)으로 여겨지는데, 이 판본은 명나라 洪武元年(무신, 1368) 雲衢(建陽의 다리 이름) 會文堂의 중각본을 일본의 남북조 시대에 복각한 것입니다(양명문고의 完本 7冊의 五山版에는 ‘雲衢會文堂戊申孟冬刊’의 原木記가 있습니다). 고잔의 선승은 송·원의 시를 학습하였는데, 송·원시는 두보를 존송하였으므로, 두시에도 경도되어 講釋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종의 두보집도 간행되었습니다. 이 판본에는 고잔 승려에 의한 상세한 기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계 겐테이(心華元棣, 1339~?)의 훈점이 가해져 있습니다(제6책 말미에 朱筆로 ‘心華點寫了’라고 되어 있다). 그의 杜詩抄 『杜詩心華臆斷』은 傳本 未詳이므로, 본 판본은 고잔 두시학의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香色表紙 27.2×17.3cm, 每半葉 14行, 行24~26字 不等, 匡郭 21.0×13.6cm.

10 新刊五百家註音辯唐柳先生文集 45卷序目1冊 12冊 唐·柳宗元撰 宋·魏仲舉編 嘉慶元年(1387)刊

당나라 柳宗元은 같은 시기의 韓愈와 함께 산문의 문체개혁에 공적을 남기고 시에도 능하였던 문학자입니다. 두 사람은 韓·柳로 병칭되어 宋·元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산의 禪林에서는 한유와 유종원의 시문도 열심히 학습하였으며 抄物도 작성되었습니다. 본 판본은 元末의 혼란을 피해 福建에서 일본으로 도래해 온 刻工 俞良甫가 교토에서 출판한 柳宗元集의 송대 주석서입니다. 말미에 ‘祖在唐山福州境界／福建行省興化路莆田／縣仁德里臺諫坊住人／俞良甫久住(4자 空格)／日本京城阜近，幾年勞／鹿，至今喜成矣(祖는 唐山의 福州境界 福建行省興化路莆田縣仁德里臺諫坊에 있는 住人.／俞良甫 오랫동안 日本京城阜近에 살며, 몇 년 동안 勞鹿하여, 지금에 이르러 완성을 기뻐한다)／(空一格) 歲次丁卯(嘉慶元年, 1387) 仲秋印題’라고 하는 刊語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朱筆에 의한 斷句點, 朱線, 필의 훈점·傍訓·記入이 보입니다. 五百家注本の 유종원집은 이 俞良甫版이 완전판이며 중국에는 완본이 현존하지 않습니다. 改装香色表紙 26.1×20.4cm, 匡郭 20.1×16.9cm. 또한 문고에는 유량보판의 『五百家註音辯昌黎先生文集』 40권 15책(大尾에 ‘應永廿年(1413)季秋晦日墨點終 自得南軒下’의 墨筆識語가 있음)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11 王狀元集百家註分類東坡先生詩 25卷 10冊 宋·蘇軾撰 舊題王十朋集注 劉辰翁批點 室町刊

禪家에서 애독된 蘇軾詩集의 주석서입니다. 여러 주석을 정리한 편자를 송나라 王十朋으로 한 것은 書商이 가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은 제1~3·8~10책이 무로마치시기(일설에는 남북조)에 원나라 建安 熊氏刊本을 복각한 五山版으로 채워져 있고, 제4·5책(권9~12)는 同版의 後印本, 제6책(권13·14)는 別種의 同版後印本, 제7책(권15·16책)은 元版으로 補配되어 있습니다. 補配한 元版은 ‘增刊王狀元集百家註分類東坡先生詩’으로 제목이 붙여진 廬陵刊本. 朱筆의 斷句點, 朱線, 墨筆의 훈점·傍訓·記入이 복수의 인물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4권 말미에는 고노에케(近衛家) 제17대 당주 노부타다(信尹, 1565~1614)가 ‘天正十三年(1585) 內大臣 信輔’라는 목필 識語를 더하고, 제5권 卷首에 花押을 하고, 권6 말미에 ‘天正十三年’이라고 목서로 기입하였습니다. ‘信輔’는 노부타다의 이름(慶長3년<1598>전후에 개명), 노부타다는 天正(덴쇼) 13년 3월 10일에 左大臣으로 昇任하므로, 이 목서는 그 직전에 기입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표지는 고탄자본 『論語集解』의 殘葉을 사용해 배접하였으므로, 17세기 초의 개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본 판본과 노부타다의 소식시문 애호에 대해서는 마쓰오 하쓰코(松尾肇子) 씨의 「近衛家에서의 蘇軾 詩文」(『東海學園 言語·文學·文化』第八号)에 자세하며, 본 항목은 이를 참고하였습니다. 紺表紙 26.0×16.5cm, 五山版의 匡郭 19.8×12.8cm.

12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3卷 3冊 宋·周弼編 元·釋圓至注 裴庾增注 室町刊

본서는 고잔 승려들에게 애독되어 이후 매우 유행한 唐詩의 選本입니다. 唐代 후반기 이른바 중당·만당 시인의 칠언절구·칠언율시·오언율시의 삼체시를 선정하여, 작시의 요체도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각권, 詩體마다 서명을 달리 하고 있어, 권1은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권2는 ‘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 권3은 ‘增註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三體詩』라고 약칭되는 본서에는 여러 종의 주석본이 있습니다만, 그중 이 증주본이 가장 유행하였습니다. 각 冊首에 朱文雙邊方印 ‘清原’, ‘秀/相’가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요하라노 노부카타(清原宣賢)의 5世孫 히데스케(秀相, 1600~1647)의 것입니다. 後補 褐色表紙 26.4×18.5cm, 匡郭 20.4×14.7cm.

五 古活字本

13 勸學文 1冊 慶長2年(1597)刊

본서는 五山禪林에서 크게 유행한 宋末·元初의 黃堅編 『古文眞寶 前集』 卷1에 수록된 송나라 眞宗의 「勸學」·仁宗의 「권학」·司馬溫公(司馬光)의 「勸學歌」·柳屯田(柳永)의 「勸學文」·王荊公(王安石)의 「권학문」·당나라 백낙천의 「권학문」·송나라 朱文公(朱熹)의 「권학문」·(당나라 한유)「符讀書城南」詩를 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말미의 刊語에 ‘命工每一梓鏤一字, 綦布之一版印之./此法出朝鮮, 甚無不便, 因茲摸寫此書./’(空一行低一格)慶長二年(1597)八月下澣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판본은 조선의 동활자가 전래되어, 그것을 모방하여 목활자를 만들어 印行한 활자본입니다. 일본인쇄사의 기념비적 사업을 실행한 사람은 인행 시에 재위한 고요제이(後陽成) 천황입니다. 천황은 『권학문』에 이어, 다음에 언급할 『四書』 등 약 11종의 서적을 활자판으로 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판본을 ‘慶長勅版’이라고 합니다. 양명문고에 소장된 ‘慶長勅版’의 여러 책들에는 고요제이 천황이 하사한 것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셋케(掇家) 필두의 고노에케(近衛家)의 소장본이므로, 하사본이었다고 상상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表紙 28.9×22.2cm, 匡郭 25.0×16.2cm.

14 四書 26卷 5冊 宋·朱熹編 慶長4年(1599)刊

이 『四書』는 『대학』 1권 1책, 『논어』 10권 1책, 『맹자』 14권 2책, 『중용』 1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서』는 남송의 주희가 編定하고 주석하여, 이후 유학에서 ‘五經’과 나란히 존송된 경서입니다. 본 판본은 주희의 「집주」를 제외한, 본문만 있는 것입니다. 扉裏의 커다란 木記에 각 서명과 함께 印行年을 ‘慶長己亥刊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慶長己亥’는 4년(1599). ‘慶長勅版’을 대표하는 판본입니다. 양명문고 외에 『사서』를 모두 갖추어 소장한 곳은 없습니다. 『대학』·『중용』에는 朱筆과 墨筆로 두 종류의 훈을 가하였는데, 목필로 가에리텐(返り點)·縱點이 쓰여 있습니다. 『논어』에는 朱線, 斷句點이 있는데, 『맹자』에는 加訓이 없습니다. 香色原表紙 28.4×21.0cm, 匡郭 25.1×16.4cm.

15 白氏文集 71卷(卷14~17缺) 29冊 唐·白居易撰 元和4年(1618)跋刊

당나라 백거이의 시문전집 『白氏文集』은 헤이안 중기부터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백거이 시의 영향은 이어져, 중세의 노가쿠(能樂) 등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 판본은 송대 蜀刻本 系統의 조선활자본을 바탕으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의 제자였던 나하 고(那波觚, 자는 道圓, 호는 活所. 1595~1648)가 元和(겐나) 4년(1618)의 발문을 첨가하여 활자 인행한 것입니다. 양명문고에는 별도로 이제 막 인쇄한 것인가 생각될 정도로 미려한 완본 30책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엄청난 양의 記入이 있습니다. 이것은 까마득한 백거이 재세의 唐代 사본으로 소급될 수 있는 異文의 注記와 古來의 訓法을 나타낸 것으로, 백거이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原題簽을 남기고 있는 栗皮表紙 29.0×20.4cm, 匡郭 23.0×16.6cm. 별도로 권3·4 「新樂府」를 기록한 에도 전기의 사본 1책도 부록되어 있습니다.

16 新雕皇朝類苑 78卷序目1冊 15冊 宋·江少虞編 元和7年(1621)刊

본서는 편자 自序의 題名에서 ‘皇宋事實類苑’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송대 왕정의 故實, 장군대신과 명가의 逸事, 외교·변경사정, 각지의 풍속, 민간의 畵事 등 여러 갈래에 걸친 내용이 분류 편집되어 있어, 송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본 판본은 말미에 ‘元和七年重光作噩(辛酉, 1621)六月晦日’의 우세쓰 즈이호(有節瑞保)에 의한 장문의 발문이 있어(全4葉), 고미즈노오(後水尾) 천황의 칙명에 의해 간행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미즈노오 천황의 출판을 ‘元和勅版’이라고 합니다. 활자는 목활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目錄’ 끄트머리에 ‘紹興二十三年(1153)/癸酉歲中元日/麻沙書坊印行’라는 原刊記가 남아 있어, 저본이 남송 建陽(麻沙는 建陽 내의 鎮) 간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78권본은 중국에서는 원대 이래로 전래가 끊어졌는데, 大正(다이쇼) 무렵 일본에 온 董康가 이 元和勅版를 복제하여 다시 유행하게 된 佚存書입니다. 이 책의 권32 「典故沿革」의 衣冠·官制 등에 관한 부분에 朱點斷句가 보이는데, 다음에 거론할 『大唐六典』을 연구한 고노에 이에히로(近衛家熙)가 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香色表紙 28.2×21.3cm, 匡郭 22.2×16.6cm. 즈이호(瑞保)의 발문을 필사하고 단구·朱線·訓을 넣은 한 장의 종이가 부록되어 있습니다.

3 近衛家熙의 學藝의 諸相을 전하는 漢籍

에도시대 중기, 고노에케(近衛家) 제21대 당주 이에히로(1667~1736)가 서법·회화·茶道·華道·和歌·有職故實 등 예술 전반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각각의 문화를 극대화한 위대한 문화인이었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학문을 좋아해서 박학·다식의 뛰어난 교양인이었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학의 방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히로는 唐代의 관제를 기록한 『大唐六典』의 考訂·출판을 말하자면 필생의 사업으로 여겨 학문의 정열을 쏟았습니다. 처음 명대 중기의 판본을 저본으로 한 考訂을 6년 만에 완성하여 板行에 이르렀는데, 그 존재를 알

면서 입수할 수 없었던 명대 초기의 판본을 구입하자 考訂을 다시 하는 노력을 거듭하였습니다. 착수하고부터 20년이 걸렸습니다. 考訂에는 다방면의 문헌을 수집하고 이들 문헌의 확실함을 검토하여 구사한다고 하는 철저한 작업 위에 자신의 고찰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히로는 문헌의 사용 방법을 侍臣 야마시나 도안(山科道安)에게 ‘……出処ト云カラハ、一日モ旧キヲ引ベキ事也。……詳略ハ詳略ノ吟味ニテユソアレ、出処ハ急度シタル書ヲアグル事此事也(되도록 옛 문헌을 근거로 한다. …… 문장이 상세한지 간략한지의 검토는 필요하지만, 내력이 확실한 문헌에 의거해야 한다)’(道安 『槐記』 권2·享保10년 10월 20일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실증적 학문방법은 중국에서 淸朝의 乾隆(1736~1796)·嘉慶(1796~1820) 시대에 최고조에 달한 考証(考據)學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조의 고증학은 ‘實事求是’, 곧 확실한 근거에 의해 진실을 탐구하는 것을 표방하였습니다. 이에히로는 청나라 건륭 원년에 해당하는 해에 죽었으므로, 청조의 실증주의 학문정신을 선취한 주목할 만한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히로는 『大唐六典』의 考訂을 위해 광범위한 영역의 한적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과사전적 서적인 類書와 가지각색의 영역의 서적을 모은 叢書를 다수 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장하지 않고 閱讀하고, 종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췌와 항목색인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의 고증학적 학문과 박학·다식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게으름 없는 독서와 초록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하, 먼저 이에히로의 『대당육전』 考訂과 그와 관련된 서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방면에 뛰어났던 이에히로의 문화인적 측면에 대해서는 워낙 범위가 넓으므로, 여기서는 서화·음악·華道에 한정해서 각각 한두 종의 서적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法帖·탁본 등 서법에 관련된 서적·자료도 다수 있습니다만, 소개를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에히로가 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실은 종래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적을 특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학·다식의 기반이 되었던 서적과 학문적 영위를 보여주는 서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 『大唐六典』의 考訂

17 大唐六典 30卷 8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明·嘉靖23年(1543)刊

18 同 30卷 13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家熙手寫·初校本

19 同 30卷 14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明·正德10年(1515)序刊

20 同 30卷 10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家熙手寫·再校本

21 同 30卷 20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元文4年(1739)刊(近衛家)

『대당육전』은 당나라 玄宗황제의 명령에 의해 李林甫 등이 저술한, 唐王朝의 官制에 대해 역대의 연혁과 함께 기록한 책으로, 율령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관직제도를 설명한 책입니다. 일본은 7세기 중반에 당왕조의 율령체제를 모범으로 하여 국가 기구가 만들어지고, 다이조칸(太政官)을 정점으로 하는 관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관제는 헤이안 말기에는 실질을 잃

지만, 에도 말기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이에히로의 시대에도 唐制를 계승한 율령관제는 형해화 되기는 했어도 엄연히 존재하였으며, 고셋케(五摂家)의 필두인 고노에케(近衛家)는 그 상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히로는 孝親당옥전설의 교감에 해박한 학식과 대단한 노력을 들여, 考訂本の 開版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대어 서 있던 바를 확인하는 행위였기에 校刻은 이에히로 필생의 작업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후년에 간행될 때 붙여진 「범례」에 ‘蓋し校勘の功、二十寒暑を經、乃ち先賢の所謂る精力、此の書に盡く(宋·司馬光「進資治通鑑表」の語)者ならん(原漢文)[대개 교감의 공이 스무 해를 거쳤으니, 곧 선현이 이른바 정력을 이 책에 다하였다(송나라 司馬光의 「進資治通鑑表」에 나오는 말)는 것이다(원래 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享保(교호) 9년(1724)에 이에히로는 서문(近衛家刊本 孝親唐六典諱頭所載)를 撰하였는데, 그 후에도 수정을 거듭하여, 출판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蕪去한 후였습니다. 元文(겐분) 4년(1739) 三周忌를 기하여 上梓(版下記는 이에히로를 가까이 모셔 그의 학풍을 배운 오카모토 구니우지(岡本邦氏)·사타케 시게노리(佐竹重威), 이듬해에 印行이 완성되었습니다(近衛本の 刊印과 版下記에 대해서는 미도리카와 아키노리(綠川明憲) 씨 豫樂院鑑 近衛家熙公年譜설참조). 21이 고노에케 원간본입니다. 판목이 현존하며 교토대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2년에 북경의 중화서국에서 출판된 孝親唐六典설도 近衛本을 크게 참고하여, 이에히로의 考訂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17은 제1차 교감에서 저본으로 사용한 명나라 嘉靖23년(1543) 간본입니다. 이 책을 필사하여 교감의 본으로 하고, 다른 여러 판본을 가지고 考訂을 한 것이 18의 家熙手鈔校本입니다. 그런데 저본으로 한 嘉靖版은 正徳版의 중각본이어서, 탈자·탈문의 오류, 판목의 마멸 손상에 의해 문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不善本이었으므로, 이에히로는 어떻게 하든 정덕판을 사용하기를 바랐습니다. 과연 享保11년(1726) 11월 중순에 정덕판을 구입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밤낮으로 이를 바탕으로 校습을 하여 상세한 교감기를 더한 두 번째 考訂本을 작성하였습니다. 20이 그것입니다. 두 번의 考訂 과정에 대해서는 이에히로를 시중 든 야마시나 도안(山科道安)의 魏記설 권3·享保11년 12월 5일조의 一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히로는 정덕판을 입수하여, 자신의 교정이 이 책과 합치한 사실을 알았을 때 ‘此ノ嬉サ晝ハヒメモス(終日)夜ハヨモスガラ寝ラズ(이 기쁨은 낮에는 하루종일, 밤에는 밤새도록, 잠들 수가 없다)’라고 격양하였다고 도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가 정덕10년(1515) 序刊本, 20이 이에히로 제2차 手鈔校本입니다. 17은 胡桃色原表紙 27.8×17.0cm(담황색의 覆表紙로 보호함), 每半葉 11行, 匡郭 20.0×14.3cm. 18은 空色地金色向獅子丸散らし牡丹唐草紋唐紙表紙 29.2×20.7cm— 家熙筆外題, 料紙楮打紙, 無界 9行 18字, 字面 높이 약20.2cm. 19는 薄綠色地牡丹唐草紋唐紙表紙26.5×16.4cm, 每半葉 12行, 匡郭18.3×12.8cm. 20은 白地波紋唐紙表紙 29.9×20.7cm, 本文 墨界 8行 稿紙(22.2×14.7cm). 21의 匡郭 21.6×15.4cm.

二 『大唐六典』에 관련된 서적

22 文獻通考 348卷 100冊 元·馬端臨 明·嘉靖3年(1524)序刊(經廠)

원나라 馬端臨 撰 文獻通考는 당나라 杜佑 通典의 뒤를 이어 송대의 사항까지도 포함하는데, 주로 경제·관직·의례 등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해설한 ‘政書’입니다(문헌해제의 「經籍考」 76권도 있음). 이에히로는 元대당옥전설의 考訂에 通典을 근거로 한 경우가 많은데, 元문헌통고설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판본은 명나라 嘉靖3년(1524)의 서문이 있어, 거의 같은 시기 궁전에서 刊刻된 이른바 經廠本이라 불리는 판본입니다. 양명문고에는 內府의 간본에 어울리는 당당한 書品을 갖추어, 앞 뒤의 표지를 일체로 하여 書背를 감싼 包背裝의 原裝과 原題簽, 目錄題簽도 보존되어 있는 선본입니다. 매 책 첫머리에 날인되어 있는 「廣運 / 之寶」의 朱文大方印은 명대 內府의 도장으로, 본 판본의 귀중함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空色絹表紙 34·1×20·4cm, 匡郭 24·9×16·5cm.

23 欽御製新頒大明律例注釋招擬折獄指南 合18卷 20冊 明刊(劉氏安正堂)

본서는 서명에 나타나 있듯이 명대의 형법서이므로, 元대당옥전설의 考訂에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법제 자료라는 관점에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 이에히로가 收藏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명은 권18이 다르므로 ‘합18卷’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든 서명은 권1에 의한 것입니다. 권18의 말미에 ‘劉氏安正堂梓’라는 蓮牌木記가 있습니다. 劉氏安正堂은 宣德4년(1429)부터 萬曆39년(1611)까지의 刻書를 확인할 수 있는 명대, 福建의 建陽을 대표하는 書肆입니다(福建古代刻書설 226면). 본 판본의 간년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洪武30년(1397)의 「御製大明律序」에 이어 萬曆13년(1595)의 「重修問刑條例題稿」가 부록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元中國古籍善本書目은 권7이 결본인 南京 大有堂刻本の 欽御製新頒大明律例注釋招擬折獄指南을 저록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 판본은 매우 드문 귀중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香色表紙 23.3×14.3cm, 白紙題簽에 ‘大明律指南 幾’의 묵서는 이에히로 자필. 匡郭 20.4×12.2cm.

24 十五省物產 6冊 江戶中期寫

畿輔通志 盛京通志 浙江通志 등 청대 15省의 總志의 物産部를 초록한 것입니다. 元대당옥전설에는 권3 戶部郎中·員外郎 조에 각지의 物産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히로는 이러한 발췌본을 작성해서 참고에 대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는 박물학에도 정치하였으므로, 자료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명문고에는 본서가 2부 있는데, 하나는 야마시나 도안(山科道安)의 초록본입니다. 葡萄茶色地色木瓜花兔分銅紋散菱花繫ぎ空押し表紙 21.0×19·2cm, 字面 약23.5×16.0cm. 題簽은 이에히로 자필. 이 초록에 대해서는 元魏記설권4·享保12년(1727) 3월 27일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三 書畫・音樂

25 方氏墨譜 6卷雜2卷 8冊 明・方于魯編 明萬曆刊

安徽省은 文房四寶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製墨은 歙縣에서 특히 왕성합니다. 본서는 명대, 安徽歙縣의 製墨匠 方于魯(자는 建元. 1541~1608)가 萬曆17년(1583)의 서문을 실어 출판한 墨型 圖案集입니다. 384圖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판본은 백옥 같은 料紙에 정치한 刻畫가 목색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어 황홀할 정도로 優美한 선본입니다. 이에히로도 賞翫해 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본서에 대항하여 方于魯의 師匠인 程大約(자는 君房)은 515圖를 수록한 ~~方氏墨譜~~을 編刊하였는데, 두 책은 墨譜의 쌍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改裝香色表紙(31.0×18·8cm)에 淺葱色題簽을 붙인 書題는 이에히로 자필. 匡郭 24.7×14.3cm, 판심 아래쪽에 ‘美蔭堂集’이라고 되어 있다.

26 樂書 200卷 44冊 宋・陳暘撰 宋刊, 元・明修

27 樂書正誤 1卷 1冊 宋・樓鑰撰 陳芾補 元刊

~~樂書~~는 북송 말에 陳暘이 편찬한 「經部·音樂類」의 서적입니다. 권95까지는 經書에서 음악과 관련된 언설을 인용하여 해설을 가한 것이고, 이후는 음악 이론과 악기 등에 관한 그림을 넣고 여러 서적에서 두루 考辨 논설한 「樂圖論」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베 류이치(阿部隆一) 씨의 「日本國見在宋元版本志經部」에 의하면 ~~樂書~~는 남송 慶元6년(1200)의 서문을 넣어 간행한 것을 원나라 至正7년(1347)에 修補 重刻한 판본이 있는데, 현존본에는 宋版原刻葉이 거의 없어 오히려 至正7년 간본이라고 불러야 하며, 그 대부분은 다시 명대에 보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 판본도 명대의 보수가 보입니다. ~~樂書正誤~~는 남송의 樓鑰(1137~1213)이 慶元本 ~~樂書~~의 교정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에, 陳暘의 아들 陳芾이 補遺를 보탠 책입니다. 元刊 본인 본 판본이 현존 最古本이며, 그밖에는 대만 국가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귀중본입니다(阿部氏 前掲書에 의함). 26에는 補寫가 가해져 있으며(卷134~137 외 부분적으로 補寫葉 있음), 중간에 이에히로의 補寫도 보입니다. 26·27 한 벌로 소장되어 있으며, 薄綠色地牡丹寶盡紋艶出し蠟箋表紙(25.1×18.4cm)로 장정되어 있습니다. 26의 版匡은 21.1×16.0cm, 27은 22.0×15.9cm.

四 華道

28 花史左編 27卷 8冊 明・王路撰 明萬曆46年(1618)序刊

이것은 꽃의 품종·故實 등을 분류편집한 책입니다. 명나라 萬曆46년(1618)의 서문이 있는 綠綺軒刊本の 原刻本입니다. 원대 후기부터 속표지를 넣은 판본이 등장하는데, 이 책의 面紙는 꽃에 대한 책에 어울리는 취향을 살린 다색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은 매우 드뭅니다. 鳥の子色砂子散らし表紙(26.0×15·8cm)에 隸書로 쓴 外題는 이에히로의 자필입니다. 匡郭 20.1×12.0cm.

29 紹興校定經史証類備急本草畫圖 20卷 10冊 宋·王繼先等奉勅撰 江戸中期寫

본서는 남송의 王繼先 등이 高宗의 칙명을 받아 大觀本草畫에 교정과 주석을 가하여 紹興29년(1159)에 편찬, 上進한 本草書입니다. 황제에게 進모한 후 간행되었는데, 청대 이후에는 傳本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찍이 일본에 전래된 책에 의한 傳鈔本가 존재합니다. 대개 19권본(국립공문서관 舊內閣文庫藏本 등)과 5권본(東洋文庫 등)의 두 계통이 있는데, 20권본은 다른 곳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본의 그림에는 채색이 가해진 곳이 많이 보입니다(동양문고에도 채색본 있음) 본래 漢方藥의 서적인데, 이에히로가 초목의 圖譜로서 애독하였던 것으로 상상되는 아름다운 삽도입니다. 楮紙를 料紙로 하며 여러 사람이 필사. 紺地空押し 木瓜花兔分銅桐丸紋散らし表紙 26.8×19.3cm. 無界 行19字부터 21字 不等, 字面 약 20.0×13.5cm.

五 言語學

30 千字文音決 1卷 1冊 江戸中期寫(近衛家熙)

이에히로 자필 사본입니다. 元辰자문설은 梁나라 周興嗣가 한 글자도 중복 없이 사용하여 4언 250구 총 1,000자로 되어 있으며 ‘天地玄黃, 宇宙洪荒’으로 시작해서 ‘謂語助者, 焉哉乎也’로 끝나는 운문을 지은 한 편의 문장입니다. 元辰어설와 함께 백제에서 박사 王仁이 전래하여 일본에 있어 漢籍의 濫觴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識字와 고사를 아는 幼學書, 또는 書道의 글씨본으로서 예로부터 중국·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본서는 이에히로가 元祿(겐로쿠) 7년(1694, 28세)에 가마쿠라시대의 貞永(쥬에이, 1232)·天福(덴푸쿠, 1233) 무렵의 필사본을 필사한 것으로(이에히로 手書의 발문에 의함), 元字文音決설 유일한 傳本입니다. 본문을 읽는 방법을 좌우로 병기하였는데, 오른쪽은 音讀, 왼쪽은 訓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시문을 음독과 훈독 양쪽으로 읽는 방법을 ‘문선 읽기(文選読み)’라고 하는데, 헤이안 왕조시대의 한적 읽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왕조 이래의 元辰자문설의 독법을 전하는 일본어학의 귀중한 자료입니다. 朱筆로 聲點, 藍筆로 校記를 기록했습니다. 본서는 이와나미문고(岩波文庫) 元辰자문설에 翻字되어 있습니다. 粘葉裝. 本文 料紙는 鳥の子紙. 香色地墨流し紋表紙 22.7×16.7cm. 字面 약14.5×17.0cm.

31 新刻増校切用正音郷談雜字大全 2卷 2冊 江戸中期寫

方言과 官話(지역적 공통어, 본서의 것은 北方官話인 듯하다)의 어휘와 어구를 분류집성하고 위아래로 대조하여 보인 어학서의 사본입니다. 어휘에는 音注와 語義의 주석을 가하였습니다. 서명의 ‘新刻増校’의 문자, 또 상권 목록 끄트머리에 ‘前刻에 오류가 많아 이제 각각 訂正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본의 저본은 개정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의 목록에는 ‘天文 時令 地理 人物 身體 / ……衣服 珍寶 文史 人事 數目’을 들고 있습니다. 게재되어 있는 어휘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面紙에 ‘増補漢語郷談 / 正音雜字全集’이라고 되어 있고 兩行의 중앙에 小字로 ‘乙卯歲澄邑書林郭柳之重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乙卯歲’

가 몇 년에 해당하지는 확실히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본으로 살펴보면 저본은 명말·청초의 판본의 풍격을 느끼게 하므로, 명말 만력43년(1615)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澄邑’은 廣東 澄海縣의 별칭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鄉音’은 광둥어가 됩니다. 아마도 俗書인 탓에 중시되지 않아 소멸한 까닭인지, 이 책은 달리 傳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珍本이며, 또 근세 漢語·方言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히로가 중국의 속어에까지 관심이 있었던 사실도 알게 해주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櫻色地朽葉色花草文表紙 28.1×19.5cm, 匡郭 22.0×14.5cm.

六 考証과 博識을 지지한 서적—類書·叢書의 富藏과 그 활용—

32 類編祕府圖書畫一元龜 存154卷 40冊 江戸中期寫

이것은 편자 미상의 송대 類書입니다. 중국에서는 佚書로 되어 있으며, 판본으로는 다만 일본에 전래된 송판의 잔본이 분산되어 현존할 뿐입니다. 하나는 宮內廳 書陵部 所藏本(金澤 文庫印이 있음), 다른 하나는 도후쿠지(東福寺)의 不二庵(현재 靈雲院) 구장본이 흠어진 것입니다. 본서 자체가 佚存書여서 인용서에도 佚書가 적지 않은, 귀중한 類書입니다(阿部隆一氏 叢書訂中國訪書志 112면 참조). 이 사본에는 이에히로가 편찬하여 手書한 서문이 있습니다(序末 「享保壬寅秋九月旦／虛舟子誌」 「虛舟／之章」 白文方印·「物外／叟史／主印」 朱文方印. 享保 임인은 7년, 1722, 56세). 여기에는 二庵本을 베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不二庵本은 入明僧, 사쿠젠 슈료(策彦周良, 1501~1579)가 가져온 잔본입니다. 갑·을·병의 3부가 남아 있는데, 缺佚 부분이 있습니다. 병부의 標題는 ‘太學新編畫一元龜’이며 ‘仁仲校正’·‘國學進士 余仁仲校正’·‘仁仲比校訖’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따라서 원본은 남송 建安의 書肆, 萬卷堂 余仁仲의 간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1책의 목록은 藤丸散らし 唐草紋空押し丹表紙, 제2책 이후는 金唐草紋空押し丹表紙, 모두 28.7×20.1cm. 無界 13行, 行25字, 字面 약22.8×16.5cm.

33 太學增廣新編聲律萬卷卷會元 存20卷 39冊 編者未詳 元刊

권8~13·14下~16·19·20·25下~28·56·60~63의 잔존본입니다만, 다른 곳에 傳本을 확인할 수 없는 국내 유일본입니다. 사항마다 어휘를 분류하고 전거의 文例를 제시한, 과거시험자를 위해 편찬된 유서입니다. 각 항목은 표제어 아래에 ‘躰字’(대우를 이루는 어휘), ‘事實’(관련 어휘와 그 전거), ‘譬喩’(비유 표현의 용례), ‘反說’(부정적 표현의 용례)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題簽은 이에히로 自筆. 香色表紙 13.8×8.5cm, 匡郭 11.0×7.0cm.

34 湖海新聞夷堅續志 前·後集各10卷 6冊 編者未詳 元刊

서명의 ‘夷堅續志’는 송나라 洪邁의 志怪小說集 夷堅志의 속편을 표방한 명명입니다. 주로 송·원시대의 異聞과 逸事を 수록한 ‘小說’類에 속하는 책으로, 各話를 분류해서 편집하였습니다. 처음에 「新編湖海新聞夷堅續志綱目(目次)」를 싣고, 「前集」에는 人倫·人事·符籤·

珍寶·拾遺·藝術·警戒·報應, 「後集」에는 神仙·道教·佛教·文華·神明·怪異·精怪·靈異·物異·夢兆의 門目을 들고, 말미에 「碧山精舍鼎新編刊」이라고 하는 음각의 木記를 더하였습니다. 전집·후집이 모두 갖춰진 책은 다른 곳에 확인되지 않습니다(북경의 국가도서관본은 전집만 있음. 별도로 20권본이 있습니다). 다만 缺葉이 있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모란·갓은 보물 문양을 넣은 열은 남색 蠟箋의 표지에 '湖海新聞 前集(後集)幾之幾'라고 기록된 題簽는 이에히로의 直筆입니다. 또한 표지 뒤에 '唾拈書/勿侵紙(침을 묻혀 책을 집어 종이를 상하게 말라) / 勿以/指夾葉/葉折角(종이를 손가락에 끼우거나 종이를 접지 말라)'라는 朱文方印은 이에히로 自刻의 장서인으로, 애서가였음을 잘 알 수 있는 印文입니다. 表紙 20.0×12.4cm, 匡郭 17.0×10.8cm.

35 新刻天下全書博覽不求人 20卷 4冊 明·萬曆26年(1598)刊(詹氏進賢堂)

서명의 '不求人'이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다, 또는 이 책으로 무엇이든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가정백과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이런 것들을 '日用類書'라고 하는데, 명청시대에 세간에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다만 俗書였으므로 한 번 쓰고 버려져, 현존하는 고간본은 매우 드뭅니다. 민간의 습속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는 학술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명문고에는 이 만력26년의 鈔不求人설외에, 만력35년(1607) 余文台刊本 鈔崇文閣彙纂士民萬用正宗不求人全編설 35卷 12冊, 청나라 건륭36년(1771)刊 鈔增補萬寶全書설 30卷 6冊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본 판본은 속서에서 쉽게 보이는 것처럼 권에 따라 서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권6은 「新鐫四民要覽天下全書不求人」으로 되어 있음). 편찬자는 미상. 水色 表紙의 外題는 家熙筆. 淺葱色表紙 24.8×18.6cm, 匡郭 19.9×12.2cm.

36 『叢書書目索引』 2冊 江戸中期寫(近衛家熙)

여러 서적을 집성한 총서는 송나라 左奎 編 鈔百川學海에서 비롯됩니다. 이 2책은 이에히로 소장의 鈔百川學海와 명대의 鈔說郛津逮秘書설 등 20종의 총서에 수록된 서적을 검색하기 위한 서명색인으로, 수록한 총서의 권차와 해당 서적의 찬자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에히로의 手書本입니다. 鈔대당육전설제2차 校本과 동일한 墨界 8行, 雙內向黑魚尾의 稿紙(22.0×14.7cm)가 사용되었습니다. 若草色地老松草花唐草紋蠟箋表紙 20.1×19.5cm.

鈔魏記설권5·享保13년 9월 21일조에 이에히로가 야마시나 도안(山科道安)에게 호한한 서적은 곧장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췌해 둘 것, 또 쉽게 원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아래 인용한 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은 그 실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명문고에는 이에히로 자필의 서적발췌·색인·목차가 많이 남아 있어, 문헌을 중시하여 진실을 탐구하는 고노에 이에히로의 학문정신에 생각이 미치게 합니다.

……凡ソ書ヲ見テ、重ネテノ為ニ拔書(ぬきがき)センニ、如此(かくのごとく)スルホド好(よき)事ハナシ。悉ク心得テ、不遺(のこらず)アゲントスルト、驚破(すはや)イル時ニ一々考盡(かんがへつく)スベカラズ。……何ニセヨ、用アラン時、早ク考エ出サルルヤウニシテオクモノヲ、廣博ナルハ却テ害アリ。第一ニ其(その)書ニアツケラク、是一ツ。第二ニ速(とて)モ其(その)書ギリニテ、本書ヲ考ザレバ、アブナキ事也。

……무릇 책을 볼 때 다음을 위해서 발췌를 하면 이와 같이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나하나 완전히 터득해서 남김이 인용하려 하려 한다면, 갑자기 필요할 때 일일이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 어찌되었든 쓰려고 할 때 빨리 생각해 낼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하지, 廣博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우선 그 책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하지만 그 책을 보고서 본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陽明文庫の漢籍

一 はじめに

藤原鎌足(六一四—一六六九)に始まる日本随一の貴族であった藤原氏の本流は、平安時代末期、藤原忠通(一〇九七—一一六四)の後に至って、嫡男基実・その子の基通の流れと三男兼実の流れに家系が二分します。前者の家系が近衛家で、代々、摂政・関白の職を継承することが許された家柄の筆頭を占めました(兼実の家系は九条家。後に近衛家から鷹司家、九条家から二条家・一条家が起り、これらを総称して五摂家といいます)。以来、近衛家は綿々と続いて現在、三十一代に至っています。ここには代々長きに亘って守り伝えた十数万点にも及ぶ古文書・古記録・古典籍・古美術工芸品があります。これを一括して保存管理する特殊な歴史資料館が陽明文庫です。設立は一九三八年で、京都市の西北、宇多野の山間(やまあい)にあります。陽明文庫の豊富な資料群にあって、漢籍(漢字で著された書籍)も質・量ともに誇る所蔵が見られます。かつて日本では、いわゆる漢学(主として儒家の經典、中国の歴史書、漢詩文)が学問の重要な位置を占め、主に書籍を通して中国の学芸を受容して日本文化を育んできました。『枕草子』に「ふみは『文集』(唐の白居易の詩文集『白氏文集』)、『文選』(六世紀前半の梁代に編集された詩文選)『新賦』(韻文の一種)、『史記』五帝本紀(前漢の司馬遷の歴史書の巻一)、……」(「文は」の章段)と記されており、平安朝の貴族達も漢詩文の才を重んじたことが知られます。平安時代前期(八九一年頃)に編集された藤原(ふじわら)佐(すけ)世(よ)の『日本国見在書目録』はその頃の日本にあった漢籍のリストで、一五七九部、一六七九〇巻がこれに記録されています。近衛家の先祖の藤原道長も漢籍の収蔵に熱心で、『御堂関白記』(二〇一三年六月に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には『文選』『白氏文集』のほかに、当時の中国の宋で勅命によって開(かい)宝(ほう)年間(九六八—一九七六)に出版された『大蔵経』も見えます。ただし残念ながら道長旧蔵の漢籍の現存を確認できません。

陽明文庫の漢籍は、室町時代以後に入蔵されたもので、おおよそ二つの蔵書群になっています。一つは主として室町時代から江戸時代初期にかけての中世漢学と関わりのある古版本・古写本です。もう一つは江戸時代中期、第二十一代当主の近衛家熙(一六六七—一七三六)の蒐集にかかり、彼の学芸と結びついた漢籍です。これらの中には、世界中にたった一つだけ陽明文庫に存在する「天下の孤本」や、中国では伝来を絶って日本にのみ遺る「佚存書」も少なくなく、国書の優品の所蔵で名高い当文庫は、また漢籍貴重書にも富んでいます。

それでは一つ目の漢籍群から注目すべき本を選んで紹介してゆきましょう。ただし、その前に漢籍として唯一、重要文化財の指定を受けた『遊仙窟』を取り上げておくことにします。

1 遊仙窟 一冊(帖) 唐・張鷟撰 南北朝時代写

『遊仙窟』は、唐の張鷟(字(あぎな)文成)の作になる小説で、官命によって黄河の源に赴く男が途中、神仙の住まうところ(仙窟)に迷い込み、崔(さい)十娘(じゅうじょう)・五(ご)嫂(そ)う)のもてなしを受け、十娘と一夜を共にした後旅立つという艶事が描かれています。早くに中国では伝来を絶ち、我が国にのみに遺存する佚存書の一つとして有名です。近代中国の文豪、魯迅も日本の本を用いて本書の研究を行いました。『遊仙窟』は、奈良時代にもたらされ、大伴旅人「遊於松浦河序」・山上憶良「沈病自哀文」(『万葉集』巻五)などに本書が用いられており、以来、平安期の『源氏物語』、近世の井原西鶴『好色一代女』、明治の柴四朗『佳人之奇遇』など、長くわが国の文学に影響を与えてきました。陽明文庫本は、奥書によれば、貞和五年(一三四九)正月に俊覚が「家本」を書写し、これに円賀が嘉慶三年(一三八九)正月に朱筆・墨筆による兩種の訓点を施して校合を加えたものです。『遊仙窟』の古写本は、近年新出の金剛寺蔵本が最古本とされ、次いで醍醐寺本、真福寺本があります。この写本も『遊仙窟』の古来の訓法を伝えており、王朝以来どのように読まれていた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極めて貴重な一本です。粘葉装一帖、紙の粉色表紙二二・三×一四・八糎、右下に「一乗院 / 快忠」の墨書(一乗院は興福寺の塔頭)。全五十二葉。押界(へら等で筋目を付けた罫線)、各面六行、行十四字(一九・〇×一三・二糎)。

二 中世漢学と関連する古版本・古写本

平安時代以来、漢学は博士家(菅原・大江家など)の主導のもとに貴族によって伝習されてきましたが、鎌倉末期から鎌倉・京都の禅宗寺院を中心にした禅僧による漢学が盛んになります。彼らは禅籍を学ぶだけでなく、儒家の經典(經書)も兼修し、宋(北宋：九六〇—一一二七、南宋：一一二七—一二七九)・元(一二六〇—一三六七)の文風を学んで漢詩文の制作にも勤しみました。世に五山文学という中世漢学の時代が始まります。禅林においては仏典だけでなく、經書や詩文集の講義も行われ、それが筆記されました。これを「抄」「抄物」といいます。また、この時代には主として禅林において仏典・漢籍が出版されました。いわゆる五山版です。禅僧らは博士家(清原家など)の学問も積極的にとりいれ、王朝漢学の伝統の継承者としての役割も果たしています。撰閲家の筆頭であり、伝統文化の担い手であった近衛家においても新潮流というべき禅林文化との交渉が見られます。五山文学の時代は、おおよそ江戸時代初期に及びますが、陽明文庫の書籍を通して理解できる近衛家と五山の漢学との直接的な関わりは、その末期に当たる時期に確認できます。なお豊臣氏の時代に朝鮮から活字版の技術が伝えられ、漢籍も出版されました。これを古活字版といいますが、陽明文庫は古活字版の所蔵でも国内屈指です。

それでは以下に中世漢学・五山文学と関連する文庫の漢籍を、中国の古版本・日本古写本・五山版・古活字版に分けて見てゆくことにします。中国の古版本とは宋・元時代の木版本のことで、日本古写本とは室町時代以前の手書き本を指します。

一 中国の古版本(宋・元版)

2 春秋経伝集解 三十卷 十六冊(首冊の巻一・二は五山版による補配)晋・杜預撰 南宋刊

『春秋』は、孔子の編纂になると見なされた経書で、春秋時代、魯国の十二公の年代記(前七二二—前四八一)です。「経」はこの年代記の本文、「伝」は春秋末期の左(さ)丘(きゅう)明(めい)の解説、「集解」は名高い杜甫の祖先に当たる晋の杜(ど)預(よ)による経・伝の注釈で、これらをもとにまとめたのが『春秋経伝集解』です。この版本は、巻末に南宋淳熙十三年(一一八六)、江陰軍(江蘇省江陰市)長官の趙不違の跋文があり、紹興(一一三一—一一六二)の初、江陰軍で秘閣の正本(北宋時代の国子監本、いわば国立大学校訂本)に基づいた出版を行ったものを重刻したと記しています。ただし『阿部隆一遺稿集』第一巻「日本国見在宋元版本志経部」によると、この宋版は紹興二十年(一一五〇)前後の原刊本(初版本)に補修を加え刻したもので、補刻は乾道七年(一一七一)・淳熙十三年、さらに南宋後期に及ぶとのこと。本版は、北宋の国子監本を受け継ぎテキスト的な価値が極めて高く、また同版本としては台湾の故宮博物院に六卷(巻十七・二十五—二十八・三十)の残本を確認されるに止まるので(阿部氏前掲書による)、まことに貴重な一本といえましょう。室町時代の詳細な書き入れ(朱筆や墨筆の句点・朱引き・ヲコト点・声点・訓点、音義・校異の頭注)が施されており、中世の経学を理解する重要資料にもなっています。室町末に粘葉装(二つ折りにした本紙の山側を糊止めした装訂)から袋とじ線装に改装され、虫損を補修する紙が版心に充てられています。補配の首冊は、南宋嘉定九年(一二一六)の興国軍(湖北省黄石市陽新県)学刊本を南北朝期に覆刻した旧刊本(五山版)で、これも稀覯本です。藍色表紙二六・四×一六・九糎、巻三首葉の匡郭二〇・七×一三・九糎。

3 新編方輿勝覧 七十卷 二十冊 宋・祝穆編 祝洙補 元初刊(覆南宋咸淳刊本)

この本は南宋末の建安(建陽と並び、福建省に属し明代まで出版が盛んな県)の祝穆が編纂し、子の洙が増補した全国地誌です。嘉熙己亥(三年、一二三九)の祝穆の跋文を有するが、住吉朋彦氏「『方輿勝覧』版本考」(「斯道文庫論集」第四九輯、二〇一五年二月)によれば、本版は元代(一二七九—一三六八)になって、南宋末の咸淳(一二六五—一二七四)跋刊本に補修を加えた版本を覆刻したものとされています。地理書ですが、各地の名所が詩文にいかに描かれているか、作品を引用して紹介することに主眼が置かれています。それで、作詩文の参考書として大いに流行し、日本にも室町時代にもたらされ、中世の漢学を主導した京都の南禅寺など五山と総称される禅宗寺院の僧侶たちが愛用しました。この本も「雲(うん)澤(たく)庵(あん)文華軒公用」の墨書(各冊末尾にあり)が示すように、かつて禅寺に所蔵されていました。古い時期に同版本・異版本で欠本を補い、また書写して補足した部分が見られます。なお当文庫には別に五十八巻の宋版残本も所蔵されています。紺色表紙二〇・六×一三・五糎、匡郭一七・二×一一・三糎。

二 日本古写本

4 松齋梅譜 存十卷(原十五卷) 一冊 元・呉太素編 室町末写

中世の水墨画や詩文の題材として愛された梅に関する書物です。巻一と巻二は梅の絵の理論や描法を記し、巻三から巻六半ばまでは梅花の諸様について絵と詩で説明し、巻六後半は詩だけが収録されています。巻七から巻十と巻十五は、残念なことに失われています。巻十一から巻十三は梅に関する詩文を集録、巻十四は梅画を良くした画人の伝記を載せています。これも中国には失われた佚存書で、そのうえ当文庫本は伝本中の最古本ですので、とても貴重です。半葉十四行、行二十五字前後不等、字面高さ約二三・〇糎。覆表紙(二六・八×二二・三糎)は近代のもの、原表紙は本紙と同じ紙で墨筆外題「百梅」と記されています。

5 長恨歌聞書 一冊 清原枝賢・清原宣賢撰 一如日重補 江戸初写

よく知られております通り、唐の白居易(字楽天)の名作「長恨歌」「琵琶行」は、平安時代以来、愛読されて大きな影響をわが国の文学に与えました。室町時代においては、かつて唐代に溯る古本系統の本が用いられていたのに代わって、宋末・元初の黄堅が編集した詩文選『古文真宝』の前集所収の本文で読まれ、中世の漢学者や五山僧にも親しまれていました。「長恨歌」には白居易の友人の陳(ちん)鴻(こう)が短篇小説に仕立てた「長恨歌伝」が附録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本書は、博士家の学問を継承した清原枝賢(外記(げき)入道雪菴、一五二〇—一九〇)による「長恨歌伝」「琵琶行序」の講釈の筆録(中世の講義録を抄あるいは抄物といいます)と枝賢の祖父、宣賢(一四七五—一五五〇)の「長恨歌抄」「琵琶行抄」を加え、さらに日重(一五四九—一六二三)「追加」の「長恨琵琶抄」を附した内容になっています。「長恨歌抄」の末尾には「天正二(一五七四)八月初八日於洛陽建仁寺兩足院書之畢」という元の奥書があり、また日重の「長恨琵琶抄」の末尾には「此十一枚追加者元和二丙辰(一六一六)二月、對小僧□令校合、時先年 / 之抄外、箋書附之。又補先抄之闕而已」という識語があります。筆写は複数人による寄合(よりあい)書(が)きになっています。日重(号一如、一五四九—一六二三)は日蓮宗の高僧で、近衛家第九代当主の道嗣(一三三二—一三八七)の子の玉洞妙院日秀上人が応永十七年(一四一〇)に開いた本満寺の十二世になっております。日重は法華僧ではありますが、清原枝賢や林(はやし)宗二(そうじ)(一四九八—一五八一)、西笑(さいしょう)承兌(しょうだい)(一五四八—一六〇八)に就いて儒学も修めました。香色表紙二八・三×二〇・六糎、本文無界十一行、行二十五字から三十字不等、字面高さ約縦二三・〇糎。

6 論語抄 十卷 十冊 湖月信鏡撰 笑雲清三編 室町末写

この本には「是書、湖月老人所講也。前後二十 / 三席、始南泉終方廣。予僅万之一鈔之。 / 傍執宜竹和尚聽書而贅矣。曾參 / 魯參之嘲、傳説傳説之錯。不知聚幾州鍊、鑄箇一愚鈔乎 / 永正十一壬(甲)戌(一五一四)九月望 清三志」という奥書があります。これによって、三条西実隆と交流し東福寺の住持となった湖月老人こと湖月信鏡(?—一五三五)の講釈を筆録し、宜竹和尚すなわち景徐周麟(けいじょうしゅうりん)(一四四〇—一五一八)の抄を加えて編した『論語抄

』だと分かります。この抄物をまとめて奥書を加えた「清三」は、『四河入海』(天文三年、一五三四年の成立)、『古文真宝抄』など諸家の抄を集成した書物の編者として知られる笑雲清三です。本書は、王朝以来続いた魏の何晏(かあん)「集(しゅ)解(かい)」の古注を主にして解釈していますが、南宋の朱熹「集注(しゅちゅう)」の新注を加えるところがあって、五山僧による中世儒学の新傾向が示されていることが窺え、日本儒学史上の意義深い資料です。「ゾ式」(「～ゾ」と言い切る文体)の抄で書写は一筆書き。香色表紙二一・四×一六・三糎、字面高さ約一九から一八糎。

7 黄烏鉢抄 二十卷 五冊 編者未詳 室町末写

「東坡(とうば)・山谷(さんこく)、味噌・醤油」という言葉あります。東坡は蘇軾(そしよく)、山谷は黄庭堅(こうてい)堅(けん)の号で、両者は北宋を代表する詩人です。この言葉は「味噌・醤油」ほどに、蘇・黄の詩は中世の禅僧に無くてはならないものとして愛読されたことを表しています。本書はその黄庭堅詩の抄物です。宋の任(じん)淵(えん)の注釈本に基づき、詩句を挙げて詳細な解釈を施し、文体はゾ式・ナリ式混淆になっています。本文の標題は「山谷詩集註」(巻一一三・五・六・八一十一)「山谷詩」(巻四)「山谷詩集」(巻七)「黄詩抄」(巻十二一二十)「山谷抄」(巻十三尾題)「山谷詩抄」(巻十六尾題)と様々で、「黄烏鉢抄」の書名は外題によったものです。書名のいわれは分かりにくいですが、「黄」は黄庭堅、「烏鉢」は仏教語で蓮華を指す「尼(に)羅(ら)烏(う)鉢(ぼ)羅(ら)華(け)」の省略で、万里集九(一四二八—?)の『梅花无尽藏』巻五に黄山谷の画像を詠じ、「詩は烏鉢花を開く」とその詩のすばらしさを絶賛する用例があることから、黄庭堅詩の注釈を意味すると思います。この本には序跋・識語等が全く無く、編撰の経緯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惜まれます。大塚光信氏「山谷抄」(『続抄物資料集成』第十巻解説編)によりますと、前半は一韓智翹(いちかんちこう)「山谷抄」に別の抄を加えた内容に近く、後半は林宗二「黄氏口義」と共通するところが見られるが、しかし全く独自の部分もある抄者未詳の「山谷抄」ということです。本書は、他に伝本が存在しない孤本と思われ、また難解で知られる黄庭堅の詩を理解する上にも甚だ貴重です。寄合書き。香色表紙二八・八×二一・五糎、半葉一二行、行三〇字前後不等、字面高さ約二一・〇糎。当文庫には他に古活字本の『帳中香』(二十三巻四十一冊)という山谷抄も所蔵されています。

8 両音(略韻) 一冊 英甫永雄編 永祿九年(一五六六)写(編者手稿本)

「両音」とは、両様の音がある漢字において音による意味の異なりを説いたもので、この内容が本書の前に附録されていますので、この書名が付けられました。ただし本書は、禅僧が詩文・偈頌・聯句を制作するために役立つ内容が主になっており、下接字を同じくする熟語を詩韻(韻字の百六分類)によってまとめ、当該熟語の用例・典故を示す「韻類書」と呼ばれる語彙集です。この種の書は「略韻」とも称されました。かつて付けられていた題簽と思われる栗皮染めの紙片には「畧韻」とあって、この書名が本書全体の内容としてふさわしいでしょう(「室町時代研究」第三号所収の住吉朋彦氏「韻類書の効用」参照)。奥書に「永祿第九丙寅仲冬、永雄侍者二

十歳而書于若之安国高成禅寺(永雄侍者二十歳にして若〔狭〕の安国〔寺〕の高(こう)成(じょう)禅寺に書す)……」とあり、永禄九年(一五六六)、二十歳の英甫永雄(雄長老。一五四七—一六〇二。若狭武田氏、母は細川幽斎の姉)が編纂したことが分かります。彼は建仁寺・南禅寺の住持となった禅僧であり、弟子に林羅山がおり、清原枝賢・西笑承兌などと交流し、また十七代当主近衛信尹(一五六五—一六一四)や十八代当主信尋(一五九九—一六四九)との関係も有しています(信尹との関係は前掲住吉氏論文参照。陽明文庫に信尋筆『雄長老狂歌百首』所蔵)。栗皮表紙二四・〇×一九・一糎、字面高さ約二一・三糎。

三 五山版

9 集千家註批点杜工部詩集 二十卷(卷十一十二欠) 六冊 唐・杜甫撰 宋・劉辰翁評 元・高崇蘭編 南北朝刊(覆明洪武元年刊本)

杜甫の詩は唐の後半期から評価され、宋代には多くの注釈が作られ、諸注の集成書も広く行われました。南宋末の劉辰翁の弟子、高崇蘭(字楚(そ)芳(ほう))が師の評に諸注の抜粋を加えた杜甫詩集を編したのが本書です。原刻は元の大徳七年(一三〇三)とされますが、本版は明の洪武元年(戊申、一三六八)の雲衢(うんく)(建陽の橋名)会文堂の重刻本を南北朝期に覆刻したものです(当文庫の完本七冊の五山版には「雲衢會文堂戊申孟冬刊」の原木記があります)。五山の禅僧は宋・元の詩を学び、宋・元詩は杜甫を尊んだので、杜詩にも傾倒し、講釈が多くなされ、また複数種の杜甫集が刊行されました。本版には五山僧による詳細な書き入れが施されているだけでなく、心(しん)華(げ)元棟(げんてい)(一三三九—?)の訓点を加えられています(第六冊末尾に朱筆で「心華点写了」とある)。彼の杜詩抄『杜詩心華臆断』は伝本未詳ですので、本版は五山の杜詩学の貴重な資料となるでしょう。香色表紙二七・二×一七・三糎、每半葉一四行、行二四—二六字不等、匡郭二一・〇×一三・六糎。

10 新刊五百家註音辯唐柳先生文集 四十五卷序目一冊 十二冊 唐・柳宗元撰 宋・魏仲举編 嘉慶元年(一三八七)刊

唐のf柳宗元は、同時期の韓愈(かんゆ)とともに、散文の文体改革に功績をのこし、また詩も善くした文学者です。両者は韓・柳と併称され、宋・元の文学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五山の禅林では、韓・柳の詩文も熱心に学ばれ抄物も作られました。本版は、元末の混乱を逃れて福建から日本に渡来した刻工の俞(ゆ)良(りょう)甫(ほ)が京都で出版した柳宗元集の宋代注釈書です。末尾に「祖在唐山福州境界 / 福建行省興化路莆田 / 縣仁德里臺諫坊住人 / 俞良甫久住(四字空格) / 日本京城阜近、幾年勞 / 鹿、至今喜成矣(祖は唐山の福州境界福建行省興化路莆田縣仁德里臺諫坊に在りての住人。 / 俞良甫久しく日本京城阜近に住し、幾年勞鹿し、今に至りて成るを喜ぶ) / (空一格)歳次丁卯(嘉慶元年、一三八七)仲秋印題」という刊語があります。この本には朱筆による断句点、朱引き、墨筆の訓点・傍訓・書き入れが見えます。五百家注本の柳宗元集は、この俞良甫版が完全版であり、中国には完本が現存しません。改装香色表

紙二六・一×二〇・四糎、匡郭二〇・一×一六・九糎。なお文庫には兪良甫版の『五百家注音辯昌黎先生文集』四十卷十五冊(大尾に「應永廿年(一四一三)季秋晦日墨点終 自得南軒下」の墨筆識語あり)も備わっています。

11 王状元集百家註分類東坡先生詩 二十五卷 十冊 宋・蘇軾撰 旧題王十朋集注 劉辰翁批点 室町刊

禅家に愛読された蘇軾詩集の注釈書です。諸注をまとめた編者を宋の王十朋とするのは書商の仮託とされます。この本は、第一一三・八一冊が室町期(一説に南北朝)に元の建安熊氏刊本を覆刻した五山版で占められており、第四・五冊(卷九一十二)は同版後印本、第六冊(卷十三・十四)は別種同版後印本、第七冊(卷十五・十六冊)は元版をもって補配されています。補配の元版は「増刊王状元集百家註分類東坡先生詩」と題する廬陵刊本。朱筆の断句点、朱引き、墨筆の訓点・傍訓・書き入れが複数人によって施されています。第四卷末に近衛家第十七代当主の信尹(のぶただ)(一五六五―一六一四)が「天正十三年(一五八五) 内大臣 信輔」という墨筆識語加え、また第五卷首に花押を記し、卷六末に「天正十三年」と墨書しています。「信輔」は信尹の前名(慶長三年〈一五九八〉前後に改名)、信尹は天正十三年三月十日に左大臣に昇任しているので、この墨書はその僅か前に記されたに違いありません。なお表紙は古活字本『論語集解』の残葉を用いて裏打ちされているので、十七世紀初の改装と推定できます。なお本版や信尹の蘇軾詩文の愛好については、松尾肇子氏「近衛家における蘇軾の詩文」(『東海学園 言語・文学・文化』第八号)に詳しく、本項はこれを参考させて戴きました。紺表紙二六・〇×一六・五糎、五山版の匡郭一九・八×一二・八糎。

12 増註唐賢絶句三体詩法 三卷 三冊 宋・周弼編 元・釈円至注 裴庾増注 室町刊

本書は五山僧に愛読されて以降はなはだ流行した唐詩の選本です。唐代の後半期いわゆる中唐・晩唐の詩人の七言絶句・七言律詩・五言律詩の三体の詩を選んで作詩の要諦も学べる編集がなされています。各巻、詩体ごとに書名を異にしており、巻一は「増註唐賢絶句三體詩法」、巻二は「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巻三は「増註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と題されています。略して『三体詩』と称される本書には数種の注釈本がありますが、中でこの増注本が最も行われました。各冊首に朱文双辺方印「清原」、「秀 / 相」が捺されている。これは清原宣賢の五世の孫秀相(ひですけ)(一六〇〇―一四七)のものである。後補褐色表紙二六・四×一八・五糎、匡郭二〇・四×一四・七糎。

五 古活字本

13 勸学文 一冊 慶長二年(一五九七)刊

本書は、五山禅林で大いに読まれた宋末・元初の黄堅編『古文真宝 前集』卷一所収の宋代の真宗「勸学」・仁宗「勸学」・司馬温公(司馬光)「勸学歌」・柳屯田(柳永)「勸学文」・王荊公

(王安石)「勸学文」・唐の白楽天「勸学文」・宋の朱文公(朱熹)「勸学文」・[唐の韓愈]「符読書城南」詩を一書としたものです。末尾の刊語に「命工每一梓鏤一字、綦布之一版印之。 / 此法出朝鮮、甚無不便、因茲摸寫此書。 / (空一行低一格)慶長二年(一五九七)八月下澣」とあります。本版は、朝鮮の銅活字がもたらされ、それに倣って木活字を作成して印行した活字本です。この日本印刷史上の記念碑的の事業を行ったのは、印行時に在位した後陽成天皇です。天皇は『勸学文』に続き次掲の『四書』など約十一種の書籍を活字版で刊行しました。世にそれらを「慶長勅版」と称します。当文庫所蔵の「慶長勅版」諸本には後陽成天皇からの下賜を示す明らかな証拠は見られませんが、撰家筆頭の近衛家の蔵本ですので、下賜本であったと想像してもよいと思います。表紙二八・九×二二・二糎、匡郭二五・〇×一六・二糎。

14 四書 二十六卷 五冊 宋・朱熹編 慶長四年(一五九九)刊

この『四書』は『大学』一卷一冊、『論語』十卷一冊、『孟子』十四卷二冊、『中庸』一卷一冊になっています。『四書』は、南宋の朱熹が編定して注釈し、以後の儒学で「五経」と並んで尊ばれた経書です。本版は、朱熹の「集注」を除いた本文だけの本です。扉裏の大きな木記に各書名とともに印行年を「慶長己亥刊行」と記しています。「慶長己亥」は四年(一五九九)。「慶長勅版」を代表する版本です。当文庫のほかにも『四書』を揃えて所蔵するところはありません。『大学』『中庸』には朱墨両筆で二種の訓を加え、墨筆で返り点・縦点が施されています。『論語』には朱引き、断句点がありますが、『孟子』には加訓がありません。香色原表紙二八・四×二一・〇糎、匡郭二五・一×一六・四糎。

15 白氏文集 七十一卷(卷十四一十七欠) 二十九冊 唐・白居易撰 元和四年(一六一八)跋刊

唐の白居易の詩文全集『白氏文集』は平安中期から大いに流行しました。その後も白詩の影響は続き、中世の能楽などにも及んでいます。本版は、宋代蜀刻本系統の朝鮮活字本に基づき、藤原惺窩(せいか)の弟子であった那波觚(こ)(字道円、号活所。一五九五—一六四八)が元和四年(一六一八)の跋文を添えて活字印行したものです。当文庫には別に刷り上がったばかりかと思わせる美しい完本三十冊も所蔵されますが、この本にはおびただしい書き入れが加えられており、それらは遙か白居易在世の唐代の写本に溯りうる異文の注記や古来の訓法を示すもので、白居易研究にとって極めて貴重な資料となっています。原題簽を留める栗皮表紙二九・〇×二〇・四糎、匡郭二三・〇×一六・六糎。別に卷三・四「新楽府」を録した江戸前期の写本一冊が附されています。

16 新雕皇朝類苑 七十八卷序目一冊 十五冊 宋・江少虞編 元和七年(一六二一)刊

本書は編者の自序の題名より「皇宋事實類苑」という別称もあります。諸書を引用して宋代の朝廷の故実、將軍大臣や名家の逸事、外交・辺境事情、各地の風俗、民間の瑣事など多岐に亘る内容が分類編集されているので、宋代史研究の重要な資料となっています。本版は末尾に「

元和七年重光作噩(かく)(辛酉、一六二一)六月晦日」の有節(うせつ)瑞保(ずいほう)による長文の跋があり(全四葉)、後水尾天皇の勅命によって刊行された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後水尾天皇の出版を「元和勅版」といいます。活字は木活と見なされています。「目録」の末に「紹興二十三年(一一五三)/癸酉歳中元日/麻沙(まさ)書坊印行」という原刊記を留め、底本が南宋の建陽(麻沙は建陽内の鎮)刊本であることを伝えています。七十八巻本は中国では元代以降に伝来を絶ち、大正のころ日本に来た董(とう)康(こう)によってこの元和勅版が複製され再び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佚存書です。この本の巻三十二「典故沿革」の衣冠・官制などに関する部分に朱点断句が見られますが、次に取り上げる『大唐六典』を研究した近衛家熙が加えたように思います。香色表紙二八・二×二一・三糎、匡郭二二・二×一六・六糎。瑞保跋を写して断句・朱引き・訓を施した一紙が附されています。

三 近衛家熙の学芸の諸相を伝える漢籍

江戸時代中期、近衛家第二十一代の当主の家熙(一六六七―一七三六)が書法・絵画・茶道・華道・和歌・有職故実など諸芸万般に才能を発揮し、それぞれの道を極めた偉大な文化人であったことは、今さら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また学問好きで博学・多識の優れた教養人であったこともよく知られておりますが、漢学の方面にも極めて優れた業績を遺したことは、一般には注目されていないようです。家熙は、唐代の官制を記した『大唐六(だいとうりく)典(てん)』の考訂出版をいわばライフワークのようにして学問の情熱を注いでいます。始め明代中期の版本を底本にした考訂を六年かけて完成し、板行に及ぶところでしたが、その存在を知らずに入手できずにいた明代初期の版本を購入すると、考訂をやり直すという努力を重ねました。着手してから二十年にも及びました。考訂には多方面の文献を蒐集し、それらの文献の確かさを検討して駆使するという徹底した作業の上で自らの考察を加えています。

家熙は文献の用い方を侍臣の山科道安に「……出処ト云(いふ)カラハ、一日モ旧(ふる)キヲ引ベキ事也。……詳略ハ詳略ノ吟味ニテコソアレ、出処ハ急度(きつと)シタル書ヲアグル事此(この)事也(できるだけ古い文献を根拠にする。……文章が詳しいか簡略かの検討は必要であるが、素性の確かな文献に依るべきである)」(道安『槐記』巻二・享保十年十月二十日条)と語っています。この厳格な実証的学問方法は、中国において清朝の乾隆(一七三六―一七九六)・嘉慶(一七九六―一八二〇)時代に最高潮に達する考証(考拠)学に通ずるものがあります。清朝の考証学は「実事求是」、すなわち確かな根拠によって真実を探求することを標榜しました。家熙は清の乾隆元年に当たる年に亡くなりましたので、清朝の実証主義の学問精神を先取った注目すべき学者といえるでしょう。

家熙は『大唐六典』の考訂のために広範な領域の漢籍を集めました。また彼は百科事典的な書籍である類書や様々な領域の書籍をまとめた叢書を多数所蔵しています。そして、それらを死蔵することなく閲読し、縦横に活用出来るように抜き書きや項目索引をこしらえています。彼の考証学的学問や博学・多識の背景には、こうした弛まぬ読書と抄録の営みがあったので

す。以下、始めに家熙の『大唐六典』考訂とそれに関連する書籍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多芸に優れた家熙の文化人的側面については、あまりにも範囲が広いので、ここでは書画・音楽・華道に限ってそれぞれ一、二種の漢籍について取り上げるだけにします。法帖・拓本など書法の書籍・資料も多数ありますが、紹介を割愛します。その代わりに家熙が言葉についても高い関心を示していたことは従来、言及されていないので、これについての書籍を特に取り上げ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博学・多識の基盤となった書籍と学問的営みを示す書籍を紹介し、私の担当を終わることにします。

一 『大唐六典』の考訂

17 大唐六典 三十卷 八冊 唐・玄宗撰 李林甫(りりんぼ)等奉勅注 明・嘉靖二十三年(一五四三)刊

18 同 三十卷 十三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家熙手写・初校本

19 同 三十卷 十四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明・正徳十年(一五一五)序刊

20 同 三十卷 十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家熙手写・再校本

21 同 同 三十卷 二十冊 唐・玄宗撰 李林甫等奉勅注 元文四年(一七三九)刊(近衛家)

『大唐六典』は、唐の玄宗皇帝の命令によって、李林甫などが著した唐王朝の官制について歴代の沿革とともに記した書で、律令体制の根幹をなす官職制度を説いた書物です。わが国は、七世紀中葉に唐王朝の律令体制を範とした国家機構が作られ、太政官を頂点とする官制が設けられました。その官制は、平安末期には実質を失いましたが、江戸末期まで存続しました。家熙の時代においても、唐制を承ける律令官制は形骸化したとはいえ儼然として存在し、五摂家の筆頭たる近衛家はその上位を占めていました。家熙は『大唐六典』の校勘に該博な学識と多大な労力を注ぎ、考訂本の開版を志しました。それは自分の拠って立つところを確認する行為であり、校刻は家熙畢生の事業であったとあってよいでしょう。後年の刊行の際に附された「凡例」に「蓋し校勘の功、二十寒暑を經、乃ち先賢の所謂る精力、此の書に盡く(宋・司馬光「進資治通鑑表」の語)者ならん(原漢文)」とあります。享保九年(一七二四)に家熙は序文(近衛家刊本『大唐六典』冒頭所載)を撰しましたが、その後も修訂を重ね、出版されたのは残念ながら薨去後でした。元文四年(一七三九)三周忌を期して上梓(版下書きは家熙に近侍してその書風を学んだ岡本邦(くに)氏(うじ)・佐竹重威(しげのり))、翌年に印行が完成しました(近衛本の刊印と版下書きについては緑川明憲氏『豫楽院鑑 近衛家熙公年譜』参照)。21が近衛家原刊本です。板木が現存し京都大学に保管されています。一九九二年に北京の中華書局から出版された『唐六典』も近衛本を大いに参考し、家熙の考訂を高く評価しています。

17は第一次校勘に底本として用いた明の嘉靖二十三年(一五四三)刊本です。この本を写し取って校勘の本文にし、他の諸本をもって考訂したのが18の家熙手鈔校本です。ところが底本とした嘉靖版は正徳版の重刻本であり、脱字・脱文の誤り、板木の磨滅損傷により文字が見えない部分の多い不善本であったので、家熙は何としても正徳版を用いたいと望んでいま

た。果たして享保十一年(一七二六)の十一月中旬に正徳版を購入し、歡喜に堪えず、昼夜これによる校合を行って詳細な校記を加えた二回目の考訂本を作成しました。20がそれです。二度の考訂の過程については家熙に仕えた山科道安の『槐記』卷三・享保十一年十二月五日条の一節に詳しく記されており、家熙は、正徳版を入手し、自らの校訂がこの本と合致したことを知った時に、「此ノ嬉(うれし)サ昼ハヒメモス(終日(ひねもす))夜ハヨモスガラ寝ラレズ」と昂奮したと道安に告げています。

19が正徳十年(一五一五)序刊本、20が家熙の第二次手鈔校本です。17は胡桃色原表紙二七・八×一七・〇糎(練り色の覆表紙で保護する)、每半葉十一行、匡郭二〇・〇×一四・三糎。18は空色地金色向獅子丸散らし牡丹唐草紋唐紙表紙二九・二×二〇・七糎、家熙筆外題、料紙楮打紙、無界九行十八字、字面高さ約二〇・二糎。19は薄緑色地牡丹唐草紋唐紙表紙二六・五×一六・四糎、每半葉十二行、匡郭一八・三×一二・八糎。20は白地波紋唐紙表紙二九・九×二〇・七糎、本文墨界八行稿紙(二二・二×一四・七糎)。21の匡郭二一・六×一五・四糎。

二 『大唐六典』に関連する書籍

22 文献通考 三百四十八卷 一百冊 元・馬端臨 明・嘉靖三年(一五二四)序刊(経廠)

元の馬端臨撰の『文献通考』は、唐の杜佑『通典』の後を承けて宋代のことにも及び、主として経済・官職・儀礼などの諸制度について解説した「政書」です(文献解題の「経籍考」七十六巻もあり)。家熙は『大唐六典』の考訂に『通典』を拠り所にする場合が多いのですが、『文献通考』もしばしば用いています。本版は明の嘉靖三年(一五二四)の序文があり、ほぼその頃に宮廷で刊刻された所謂経廠本と称される版本です。陽明文庫本は内府の刊本にふさわしい堂々たる書品をそなえ、表・裏の表紙を一体にして書冊の背を包む包背装の原装と原題簽、目録題簽も保っている善本です。每冊首に捺された「廣運 / 之寶」の朱文大方印は明代内府の印で、本版の貴重さをさらに高めています。空色絹表紙三四・一×二〇・四糎、匡郭二四・九×一六・五糎。

23 鑊御製新頒大明律例注釈招擬折獄指南 合十八卷 二十冊 明刊(劉氏安正堂)

本書は、書名に示されるように明代の刑法書ですので、『大唐六典』の考訂には直接に関連しませんが、法制資料という観点から参考に資すべく家熙が収蔵したものと思われます。書名は卷十八が異なるので「合十八卷」としました。上掲の書名は卷一によります。卷十八の末尾に「劉氏安正堂梓」という蓮牌木記があります。劉氏安正堂は宣徳四年(一四二九)から万曆三十九年(一六一一)までの刻書を確認しうる明代、福建の建陽を代表する書肆です(『福建古代刻書』二二六頁)。本版の刊年は定かにし難いけれども、洪武三十年(一三九七)の「御製大明律序」に続いて万曆十三年(一五八五)の「重修問刑條例題稿」を附すので、それ以降の刊行と推定されます。『中国古籍善本書目』は、卷七を欠く南京の大有堂刻本の『刻御製新頒大明律例注釈招擬折獄指南

』を著録するだけですので、本版も極めて珍しい貴重本といえるでしょう。香色表紙二三・三×一四・三糎、白紙題簽に「大明律指南 幾」の墨書は家濙自筆。匡郭二〇・四×一二・二糎。

24 十五省物産 六冊 江戸中期写

『畿輔通志』『盛京通志』『浙江通志』など、清代十五省の総志の物産の部を抄出したものです。『大唐六典』には卷三の戸部郎中・員外郎の条に各地の物産を挙げています。それで家濙はこうした抜書き本を作成して参考に備えたと思われます。また彼は博物学にも精しかったので、その資料としたとも考えられます。当文庫には本書が二部あって、一つは山科道安の抄録本です。葡萄(えび)茶色地色木瓜花兔分銅紋散菱花繋ぎ空押し表紙二一・〇×一九・二糎、字面約二三・五×一六・〇糎。題簽は家濙筆。なおこの抄録については『槐記』卷四・享保十二年(一七二七)三月二十七日条に記されています。

三 書画・音楽

25 方氏墨譜 六卷雑二卷 八冊 明・方于魯編 明万曆刊

安徽(あんき)省は文房四宝の名産地で知られ、製墨は歙(しょう)県が特に盛んです。本書は明代、安徽歙県の製墨匠の方于魯(字建元。一五四一—一六〇八)が万曆十七年(一五八三)の序を冠して出版した墨型の図案集です。三百八十四図を収録しています。本版は白玉のごとき料紙に精緻な刻画が墨色鮮明に印刷されており、惚れ惚れする優美な善本です。家濙も賞翫して止まなかったものと思われます。また本書に対抗して方于魯の師匠の程大約(字君房)は五百十五図を収める『程氏墨譜』を編刊しまして、両書は墨譜の双璧とされています。改装香色表紙(三一・〇×一八・八糎)に貼付の浅葱色題簽の書題は家濙筆。匡郭二四・七×一四・三糎、版心下方に「美蔭堂集」とある。

26 楽書 二百卷 四十四冊 宋・陳暘(よう)撰 宋刊、元・明修

27 楽書正誤 一卷 一冊 宋・楼鑰(やく)撰 陳芾(ふつ)補 元刊

『楽書』は、北宋末に陳暘が撰した「経部・音楽類」の書です。卷九十五までは経書中の音楽関係の言説を引き解釈を加え、以後は音楽理論や楽器などに関し図を加え、広く諸書によって考辨論説する「楽図論」からなっております。阿部隆一氏「日本国見在宋元版本志経部」によれば、『楽書』は、南宋の慶元六年(一二〇〇)の序を添えて刊行されたものを、元の至正七年(一三四七)に修補重刻した版本があるが、現存本には宋版原刻葉が殆ど無く、むしろ至正七年刊本というべきで、その多くはさらに明代の補修も加わっているとのことです。本版も明代の補修が見られます。『楽書正誤』は、南宋の楼鑰(一一三七—一二一三)が慶元本『楽書』の校訂の誤りを正したものに、陳暘の子の陳芾が補遺を加えた書です。元刊本の本版が現存最古本で、他には台湾の国家図書館に所蔵されるのみの貴重本です(阿部氏前掲書による)。26には補写を加えており(卷百三十四—百三十七のほか部分的に補写葉あり)、中に家濙の補写も見える。26・27

ひと揃いとして所蔵され、薄緑色地牡丹宝尽紋艶出し蠟箋表紙(二五・一×一八・四糎)で装訂されています。26の版匡は二一・一×一六・〇糎、27は二二・〇×一五・九糎。

四 華道

28 花史左編 二十七卷 八冊 明・王路撰 明万曆四十六年(一六一八)序刊

これは花の品種・故実などを分類編集した書物です。明の万曆四十六年(一六一八)の序がある緑綺軒刊本の原刻本です。元代後期から扉を加える版本が登場しますが、この本の見返しは花の本にふさわしい趣向を凝らした多色刷りに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本は甚だ珍しいです。鳥の子色砂子散らし表紙(二六・〇×一五・八糎)の隸書の外題は家熙の自筆です。匡郭二〇・一×一二・〇糎。

29 紹興校定經史証類備急本草画図 二十卷 十冊 宋・王繼先等奉勅撰 江戸中期写

本書は南宋の王繼先らが高宗の勅命を受け、『大観本草』に校正と注を加えて紹興二十九年(一一五九)に編纂、上進した本草書です。皇帝に進呈した後に刊行されましたが、清代以降には伝本を絶ったとされ、早く日本にもたらされた本による伝鈔本が存在します。おおよそ十九卷本(国立公文書館旧内閣文庫蔵本など)と五卷本(東洋文庫など)の二系統がありますが、二十卷本は他にないようです。この写本の図には彩色を施すところが多く見られます(東洋文庫にも彩色本あり)。本来、漢方薬の書籍ですが、家熙が草木の図譜として愛で楽しんだと想像される美しい挿図です。楮紙を料紙とする寄合書き。紺地空押し木瓜花兔分銅桐丸紋散らし表紙二六・八×一九・三糎。無界行十九字から二十一字不等、字面約二〇・〇×一三・五糎。

五 言語学

30 千字文音決 一卷 一冊 江戸中期写(近衛家熙)

家熙の自筆写本です。『千字文』は梁の周興嗣が一字も重複させず用いて四言二百五十句すべて一千字からなり、「天地玄黄、宇宙洪荒」で始まり「謂語助者、焉哉乎也」で終わる韻文をつづった一篇の文章です。『論語』と共に百済(くだら)から博士の王(わ)仁(に)が携え来たって、日本における漢籍の濫觴となった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識字と故事を知る幼学書、また書道の手本として古来、中国・朝鮮のみならず日本でも大に行われました。本書は家熙が元禄七年(一六九四、二十八歳)に鎌倉時代の貞永(一二三二)・天福(一二三三)のころの写本を手写したもので(家熙手書跋による)、『千字文音決』唯一の伝本です。本文の読みを左右に併記し、右は音読み、左は訓読みを示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漢詩文を音訓両読する方法を「文選読み」と称し、王朝時代の漢籍の読法であったといわれます。この本は、王朝以来の『千字文』の読みを伝える国語学の貴重資料です。朱筆で声点、藍筆で校記を記す。本書は岩波文庫『千字文』に翻字されています。粘葉装。本文料紙は鳥の子紙。香色地墨流し紋表紙二二・七×一六・七糎。字

面約一四・五×一七・〇糎。

31 新刻増校切用正音郷談雑字大全 二巻 二冊 江戸中期写

方言と官話(地域的共通語、本書のは北方官話か)の語彙や語句を分類集成し上下に対照して示した語学書の写本です。語彙には注音や語義の注を加えています。書名の「新刻増校」の文字、また上巻の目録の末に「前刻多く誤り、今各おの訂正す」とあるので、この写本の底本は改訂版であったと分かります。上巻の目録には「天文 時令 地理 人物 身体 / ……衣服 珍宝 文史 人事 数目」を挙げています。掲載されている語彙は日常に用いられるものです。見返しに「増補漢語郷談 / 正音雑字全集」とあって、両行の中央に小字で「乙卯歲澄邑書林郭柳之重梓」とある。「乙卯歲」は何年に当たるかはっきりしませんが、この写本から窺うと、底本は明末・清初の版本の風を感じますので、明末の万曆四十三年(一六一五)が該当するようです。「澄邑」は広東の澄海県の別名と考えられます。すると「郷音」は広東語になります。恐らく俗書ゆえに重んぜられず消滅したからでしょう、この本は他に伝本が存在しないと思われまゝ。珍本であり、かつ近世漢語・方言研究の重要な資料といえます。家熙が中国の俗語にまで関心があったことも知らしめ、大変に興味深い一本です。桜色地朽葉色花草文表紙二八・一×一九・五糎、匡郭二二・〇×一四・五糎。

六 考証と博識を支えた書籍——類書・叢書の富蔵とその活用——

32 類編祕府図書画一元亀 存一百五十四巻 四十冊 江戸中期写

これは編者未詳の宋代の類書です。中国では佚書となっており、版本では、ただ日本に将来された宋版の残本が分散して現存するだけです。一つは宮内庁書陵部所蔵本(金沢文庫印あり)、また一つには東福寺の不二庵(現靈雲院)旧蔵本が散じたものです。本書自体が佚存書であるうえに、引用書にも佚書が少なくない貴重な類書です(阿部隆一氏『増訂中国訪書志』一一二頁参照)。この写本には家熙が撰して手書した序があります(序末「享保壬寅秋九月旦 / 虚舟子誌」「虚舟 / 之章」白文方印・「物外 / 叟史 / 主印」朱文方印。享保壬寅は七年、一七二二、五十六歳)。これには不二庵本を書き取ったと述べています。不二庵本は入明僧、策彦(さくげん)周(しゅう)良(りょう)(一五〇一—一五七九)が将来した残本です。甲・乙・丙の三部を存しますが、缺损部分があります。丙部の標題は「太学新編画一元亀」とし、「仁仲校正訖」「国学進士余仁仲校正」「仁仲比較訖」という名を見ます。よって原本は南宋建安の書肆、万卷堂余仁仲の刊本と判断できます。第一冊の目録は藤丸散らし唐草紋空押し丹表紙、第二冊以降は金唐草紋空押し丹表紙、ともに二八・七×二〇・一糎。無界十三行、行二十五字、字面約二二・八×一六・五糎。

33 太学増広新編声律万卷会元 存二十巻 三十九冊 編者未詳 元刊

卷八一十三・十四下一十六・十九・二十・二十五下一二十八・五十六・六十一六十三の残

存本ですが、他に伝本を確認し得ない海内の孤本です。事項ごとに語彙を分類し、典拠の文例を示した科挙受験者向けに編纂された類書です。各項目は、見出しの語彙の下に「躰(たい)字」(対偶をなす語彙)、「事実」(関連語彙とその典拠)、「譬喩」(譬喩表現の用例)、「反説」(否定的表現の用例)などに分け構成されています。題簽は家熙自筆。香色表紙一三・八×八・五糎、匡郭一一・〇×七・〇糎。

34 湖海新聞夷堅統志 前・後集各十卷 六冊 編者未詳 元刊

書名の「夷堅統志」は宋の洪邁(こうまい)の志怪小説集『夷堅志』の続編を標榜した命名です。主に宋・元時代の異聞や逸事を収録した「小説」類に属する書物で、各話を分類して編集しています。はじめに「新編湖海新聞夷堅統志綱目(目次)」を載せ、「前集」には人倫・人事・符籙・珍宝・拾遺・芸術・警戒・報応、「後集」には神仙・道教・仏教・文華・神明・怪異・精怪・靈異・物異・夢兆の門目を挙げ、末尾に「碧山精舍鼎新編刊」という陰刻の木記を加えています。前集・後集の揃い本は他に確認できません(北京の国家図書館本は前集のみ。別に十二巻本があります)。ただし缺葉があるのが甚だ惜しまれる。牡丹・宝尽くし模様を摺り出した縹(はなだ)色蠟箋の表紙に「湖海新聞 前集(後集)幾之幾」と記された題簽は家熙の直筆です。また表紙裏の「唾拈書 / 勿侵紙(唾もて書を拈(つま)み、紙を侵すこと勿(な)かれ) / 勿以 / 指夾葉 / 葉折角(指を以て葉を夾(はさ)み葉には角を折ること勿(な)かれ)」の朱文方印は家熙自刻の蔵書印で、愛書家であったことがよく分かる印文です。表紙二〇・〇×一二・四糎、匡郭一七・〇×一〇・八糎。

35 新刻天下全書博覽不求人 二十卷 四冊 明・万曆二十六年(一五九八)刊(詹氏進賢堂)

書名の「不求人」とは、他人の教えを求めずとも、この本で何でも分かるという意味です。現在の家庭百科に相当する書籍で、これらは「日用類書」と呼ばれ、明、清時代に俗間で大に行われました。ただし俗書ゆえに使い棄てられ、古刊本の現存は甚だ稀です。民間の習俗などが知られるので、現在では学術的に注目されています。当文庫には、この万曆二十六年の『不求人』のほか、万曆三十五年(一六〇七)余文台刊本『鼎録崇文閣彙纂士民万用正宗不求人全編』三十五卷十二冊、清の乾隆三十六年(一七七七)刊『増補万宝全書』三十卷六冊などが所蔵されています。本版は、俗書にありがちなことで、巻によって書名を異にしております(巻六は「新鍳四民要覽天下全書不求人」に作る)。編者は未詳。水色表紙の外題は家熙筆。浅(あさ)葱(ぎ)色表紙二四・八×一八・六糎、匡郭一九・九×一二・二糎。

36 『叢書書目索引』 二冊 江戸中期写(近衛家熙)

諸書を集成した叢書は宋の左奎(さけい)編『百川学海』に始まります。この二冊は、家熙が所蔵の『百川学海』や明代の『説郛(せつぷ)』『津逮(しんたい)秘書』など二十種の叢書に収録された書籍を検索するための書名索引で、所収叢書の巻次と当該書の撰者が併記されています。家熙の手書き本です。『大唐六典』第二次校本と同一の墨界八行、双内向黒魚尾の稿紙(二二・〇×

一四・七糎)が用いられています。若草色地老松草花唐草紋蠟箋表紙二〇・一×一九・五糎。

『槐記』巻五・享保十三年九月二十一日条に、家熙が山科道安に浩瀚な書籍はすぐに要点を取り出せるように抜き書きしておくべきこと、また容易に原書を検索できるようにしておくべきことを下記引用のごとく教えています。36はその実践の証といえます。当文庫には家熙自筆の書籍抜粋・索引・目次が多く遺されており、文献を重んじ真実を探求する近衛家熙の学問精神に思いを致すことができます。

……凡ソ書ヲ見テ、重ネテノ為ニ抜書(ぬきがき)センニ、如此(かくのごとく)スルホド好(よき)事ハナシ。悉ク心得テ、不遺(のこらず)アゲントスルト、驚破(すはや)イル時ニ一々考尽(かんがへつく)スベカラズ。……何ニセヨ、用アラン時、早ク考エ出サルルヤウニシテオクモノヲ、広博ナルハ却テ害アリ。第一ニ其(その)書ニアツケヲク、是一ツ。第二ニ迎(とて)モ其(その)書ギリニテ、本書ヲ考ザレバ、アブナキ事也。